

Uninomic Review

Vol. 1 No. 2

남아시아와 한국의 생존 전략

스리랑카의 생존전략 그리고
우리의 선택
김용덕

방글라데시에 다시 찾아오는
한국의 기회
김종원

네팔의 인도-중국 균형 전략
박정석

인도 서부권역의 핵심,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이대우

인도경제의 핵심지역인 인도북구
이순철

파키스탄의 경제 현안 분석과
동반자적 관계
이정미

고성장 인도 경제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 방향
정무섭

India-Korea Strategic
Relations
Rahul Raj

세 종 연 구 원

UNINOMIC REVIEW

Vol.1 No.2

세 종 연 구 원

UNINOMIC REVIEW

Vol.1 No.2

목 차

남아시안과 한국의 생존전략

스리랑카의 생존전략 그리고 우리의 선택 | 김용덕

방글라데시에 다시 찾아오는 한국의 기회 | 김종원

네팔의 인도-중국 균형 전략 | 박정석

인도 서부권역의 핵심,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 이대우

인도경제의 핵심지역인 인도북구: 한국경제협력 전략지화 필요 | 이순철

파키스탄의 경제 현안 분석과 동반자적 관계 | 이정미 외 2인,

고성장 인도 경제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 방향 | 정무섭

세종연구원

UNINOMIC REVIEW

Vol.1 No.2

남아시안과 한국의 생존전략

스리랑카의 생존전략, 그리고 우리의 선택

김용덕*

1.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 스리랑카란?

스리랑카, 아직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면서도 어디선가 들어본듯한 곳이기도 하다. 국가명인 ‘스리랑카’로 이야기하면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대략적인 위치는 잘 모르겠고, 수도명인 ‘콜롬보’로 이야기하면 남미의 콜롬비아와 혼선을 빚으면서 전혀 스리랑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인도양의 진주’라고 이야기하면 ‘진주’라고 할만큼 그렇게 아름답냐라고 하다가 바다 건너로 몰디브를 접하고 있다고 하면 그럴수도 있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반응들은 아직 우리에게 ‘스리랑카’라는 브랜딩이 인지적(認知的)으로 잘 포지셔닝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스리랑카가 의외로 우리 삶 속에 많이 물리적(物理的)으로

* 現 KOTRA 스리랑카 콜롬보무역관장
런던대학교 국제법 박사

포지셔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스리랑카’라고 연계하여 인식하지 못 하고 있을 뿐이다. 가령, L그룹사의 ‘실론티’라는 청량음료는 오래 전부터 우리들이 즐겨마시는 음료수이지만 ‘실론티’가 스리랑카의 이전 국명(國名)이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관상(觀賞)하기까지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열대어나 해수어 중에서는 스리랑카 출신들도 제법 유통되고 있다.

스리랑카에게 있어 우리는?

반면, 스리랑카에게 한국은 이미 익숙한 나라이다.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현재 3만명이 넘게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이미 일을 마치고 스리랑카로 돌아온 노동자들도 상당수가 된다. 스리랑카 인구가 2천만명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한국 유경험자들을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스리랑카 내에서 한국을 직접적으로 잘 아는 유경험자 그룹이 상당한 수준(%)을 차지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마케팅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유경험자 그룹이 스리랑카에서 우리 한국 브랜딩에 대한 의미있는(significant) ‘입소문(words-of-mouth)’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현지에서는 우리 드라마나 음악을 즐기면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활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즐기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다.

다만, 아직 개도국이다보니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연간 5%대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스리랑카로서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서남아 지역에 있어서 우리를 좋아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임에는 분명하다.

한-스리랑카 간 정보의 비대칭성 발생

이렇게 되면, 우리는 스리랑카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지만 스리랑카는 우리에게 대한 생생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보경제학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측은 ‘역선택’을 하게 되고, 정보를 갖고 있는 측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쉽게 해석하면, 우

리는 스리랑카에 대해 ‘역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스리랑카는 우리에게 대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되든간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되지 않고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무역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도 이와 크게 상반되지는 않는 것 같다. 결국에는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발생하는 이슈들이고,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실패’로 인해 양자간의 후생(厚生), 즉 행복(happiness) 수준을 최대화시키는 자원배분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2% 부족한 느낌을 자주 받게 된다. 뒤집어서 생각해본다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정보의 비대칭성만 잘 극복된다면 오히려 확실한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2. 스리랑카의 생존 전략

글로벌 전략 : 영국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스리랑카의 대응

앞에서 설명했듯이 스리랑카는 인도양 관문에 위치해 있어 서양과 동양의 교역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로(bridge)’로서 오랜 기간 포지셔닝해왔다.

그러다보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때그때마다 상업 제국(帝國)들의 공급밸류체인에 영입(迎入)될 수밖에 없었는데, 현재 대다수 민족인 싱할라인들도 인도 남부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었고, 근세(近世)에 들어서는 포르투갈 → 네델란드 → 영국 경제권에 순차적으로 편입되는 운명을 거쳐왔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스리랑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지금도 스리랑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다름아닌 영국 지배 때였었다. 그때 당시 영국인들은 홍차(紅茶) 재배에 적격지를 찾으러 세계 각지를 찾아다니다 마침내 스리랑카를 발견해서 내륙지역에 플랜테이션 차 재배지를 개척하고 이를 수송하기 위한 철도망을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스리랑카의 기반이 되는 차 산업과 물류교통망이 바로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이 시기에 갖춰졌던 것이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영국인들은 스리랑카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지역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서남아의 중심은 인도였고 스리랑카는 그 이남에 자리잡은 낯설은 섬나라였겠지만, 당시 해상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으로서는 글로벌한 시각에서 연중 일정한 기후대와 해상물류

허브로서의 이점 등에 착안해서 스리랑카의 전략적 이점을 활용했던게 아니었을까 싶다. 그러면서, 그들만의 홍차 글로벌 밸류체인을 창출해냈고, 현재까지도 영국과 스리랑카 모두에게 윈윈 가능한 부가가치를 만들었었던 것이다.

스리랑카인들도 이러한 영국인들의 상업적 오퍼를 자존감 보다는 융통성있게 잘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이 가능했었다. 영국인들은 당시 차 재배를 위해 인도 남부의 타밀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스리랑카인들로서는 영국인도 그렇고 타밀인도 그렇고 모두 외부인들인 것이고, 자신들의 땅에서 외부인들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불과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겠지만 스리랑카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외부인들의 프로젝트를 포용하면서, 이들의 성공을 이용하여 차 플랜테이션 재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시켜 나갔다.

지역적 전략 : 서남아, 그리고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인도와 단지 31k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인도 남부에 사는 타밀인들 중에서는 수영을 잘 하는 경우 수영으로 인도와 스리랑카를 오가는 경우까지 있다고 할 정도이다. 너무 가깝다보니 인도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말이 해상물류이지 사실상 육상물류에 준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준비할 틈도 없이 딜리버리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인도와의 지리적 인접성(proximity)은 스리랑카에게는 좋은 전략적인 이점(advantage)을 주고 있다.

가령, 인도와 파키스탄은 정치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스리랑카는 인도, 파키스탄과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어, 오히려 중립자(neutral)로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비즈니스를 연계시킬 수 있다. 즉, 스리랑카를 매개로 사업을 하면 스리랑카라는 시장에 머무르기 보다는 인도와 파키스탄이라는 서남아 2대 시장을 모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여기에, 최근들어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스리랑카로서는 ‘반사적(反射的)인’ 동반성장도 같이 하고 있다. 인도 제조산업 발전에 따라 스리랑카로부터의 원부자재나 부품 공급 등도 같이 증가하고 있고, 인도제조산업 발전에 맞춰 스리랑카 현지여건에 맞는 틈새분야를 타겟해서 전략적인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참고로,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디아나존스 영화 중 일부가 스리랑카에서 촬영되었는데, 처음에는 인도에서 촬영할 계획이었고 스리랑카는 계획에도 없었다. 하지만,

인도 정부와 스크립트 상의 이슈가 발생하다보니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고민하다, 문득 여러 면에서 인도와 유사한 스리랑카가 눈에 띄이게 되었고 스리랑카도 별다르게 이슈를 삼지 않다보니 원래 인도 촬영 예정이었던 장면들을 스리랑카에 와서 촬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스리랑카는 인도와의 관계 속에서 반사적인 ‘틈새 이점’을 잘 향유(享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스리랑카의 가장 핵심적인 생존전략을 엿볼 수가 있는데, 현 정부는 2015년 집권하면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투명성(transparency)’를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여러 입법조치들도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서남아라는 지역 특성상 아직은 정부나 민간 비즈니스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상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높다보니 스리랑카가 이러한 점을 줄여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만 있다면, 오히려 서남아에서의 지정학적인 이점으로 볼 때 스리랑카가 서남아 비즈니스 관계에서 훌륭한 밸런서(balancer)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리랑카는 서남아 이전에 남아시아로 포지셔닝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서 서남아와 동남아를 연계하는 비즈니스 관계의 ‘능동적 밸런서(balancer)’로서 도약하고 싶은 것이다.

3. 현장에서 들여다본 스리랑카 비즈니스 방식

유통업체 브랜드 전략

우리 기업 입장에서 비즈니스를 살펴본다면, B2B, B2G, B2C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B2B로 국한해서 살펴본다면, 스리랑카의 비즈니스는 ‘유통업체 브랜드’에 근거한 ‘수입유통 에이전트’ 방식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한다면, 이러한 방식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쉽게 정리해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 ① 기본적으로 스리랑카는 인도라는 대국에 인접해있고, 내수시장 자체만 보면 외국 비즈니스맨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크게 보이지 않다보니, 스리랑카 시장만을 보고서 뛰어들기에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 ② 하지만, 지정학적인 입지로 인해 동양과 서양을 오가는 경우라든지 인도시장을 진출하

려는 경우에는 중간 경유지로서 스리랑카라는 시장이 가시권(可視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스리랑카를 지나치듯이 방문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 ③ 그러면서, 스리랑카를 방문하게 되면, 포용감 많고 긍정적인 스리랑카인들과 상대적으로 예측가능성이 높은 스리랑카 시장을 접하게 되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confidence)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스리랑카를 떠나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으면서 마치 ‘신밋드의 보물*’처럼 뇌리속에 자리잡게 된다.

* 스리랑카 : 신밋드의 모험에 등장하는 보물섬 배경 지역

- ④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스리랑카만 놓고서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그래도 익숙하지 않다보니 아직은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해서 리스크를 커버할 정도로 비즈니스 실익(實益)이 높다고만 생각하기 어렵다보니 이리지도 못 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스리랑카인들이 ‘에이전트’ 방식으로 초기 단계에서 리스크를 자기들이 커버하는 조건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차피 직접 못 할 바에는 이러한 에이전트 방식으로 간접 진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볼 것 없는 비즈니스’가 되게 된다.
- ⑤ 그렇다고해서 아무나 다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제조업체 브랜드 충성도를 따지기에는 1인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려운 감이 있다보니 현지에서는 ‘믿고 살 수 있는’ 판매유통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보니 현지에서 어느정도 판매유통망을 보유하고 있고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와 충성도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들만이 이러한 오퍼를 낼 수 있게 된다.

물건(product)·사람(tour)·자본(finance)의 글로벌 허브 전략

마케팅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개도국이다보니 ‘글로벌 제조업체’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가 발달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반대로 높은 가격탄력도로 인해 믿고 살 수 있는 (이른바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팔지도 않을 것이고 설령 팔았다고 하더라도 즉시 좋은 제품으로 바꿔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판매유통업체’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는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B2B 비즈니스 메커니즘으로 발달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현지 대기업 중에는 글로벌 브랜드를 60-70여개 보유하고 있는 수입유통 판매업체도 상당수 있다.

어떻게 보면 현지 제조산업 발전에는 역행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제조 대국인 인도가 바로 인접해 있어 스리랑카에서 모든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발달해온 해상물류 허브로서의 지정학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물건 + 사람 + 자본’이 대대적으로 스쳐지나가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스리랑카는 이러한 전략을 반영하여 관광산업 진흥에도 매진하고 있으며, 콜롬보 항구 인근에는 파이낸스 특별지역을 개발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도 추진중에 있다.

4. 한국의 전략적 선택

물질적 풍요 vs. 정신적 여유

스리랑카는 1인당 GDP 면에서는 우리와 차이가 있겠지만, 행복지수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월등히 앞선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우월하다고 자만할 때 오히려 정신적인 면에서는 그들이 더 큰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누구보다는 더 낫다’라는 것은 자신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전략적인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면 자신만의 오만한 선입견에 불과한 것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정신적인 풍요로움마저 비교한다면 더더욱 누가 더 좋은지는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을 잘 아는 스리랑카 vs. 스리랑카를 잘 모르는 한국

앞에서 설명했듯이 스리랑카는 우리 한국을 이미 잘 알고 있고 많은 준비도 하고 있다. 한국어를 잘 하는 스리랑카인들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 한국어에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스리랑카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반면, 스리랑카를 잘 아는 한국인들은 아직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스리랑카는 모국어가 영어는 아니지만 영국 지배를 받으면서 영어가 상용화되어 비즈니스에서 영어사용은 매우 일상적이다. 포르투갈, 네델란드, 영국 등의 서양 지배를 오랜 기간 받

으면서 문화적으로도 유럽 코드와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러다보니, 스리랑카인들의 영어권 지역에서의 동화력(同化力)은 상당히 우수하고, 인도인과는 사뭇 다른 특성과 기질 덕분에 세계 곳곳에서 잘 써바이벌해내고 있다.

단지, 현재 개도국이라는 주어진 여건상 전면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로의 편입이 어려울뿐, 조금씩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스리랑카인들의 글로벌 잠재력은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지 않을까 싶다.

BCG 매트릭스로 살펴본 시장접근

비즈니스를 하려면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캐시카우(cash cow)’ 시장 위주로 집중하고 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우리에게는 익숙한 시장이다보니 먼저 진출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어 새로운 기회 포착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스타(star)’ 단계의 시장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어서 비록 리스크가 있기는 하더라도 기회만 잘 엿볼 수 있다면 부가가치 창출면에서는 좋은 기회가 도사리고 있다.

단지, 관건은 시장 형성 자체가 부진한 ‘물음표(question mark)’ 단계의 시장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물음표(question mark)’와 ‘스타(star)’ 단계의 시장이 확연히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리랑카는 물음표(question mark) 시장인가? 아니면 스타(star) 시장인가? 이미 일부 우리 기업들에게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캐시카우(cash cow) 시장이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스리랑카의 시장 정체(正體)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선택, 그리고 도전

우리는 50년대 개도국 지위에서 시작했지만, 짧은 시기에 놀라운 속도를 보이면서 현재와 같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하지만, 오히려 앞만 보고 미국, 유럽 등의 서방 선진국,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 등의 대형 신흥국 위주로만 달려오다보니, 스리랑카와 같은 비동맹권 개도국과의 비즈니스가 익숙하지 않게 되었다. 그만큼 우리에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리스크와 비즈니스 방식이 많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영국, 일본과 같은 비즈니스 선진국은 상당히 이전부터 개도국 비즈니스를 잘 발전시켜 왔었고, 오히려 중국도 과감하게 개도국들과의 비즈니스를 개발시켜 왔었다. 우리 입장에서만 스리랑카를 바라본다면, 현재로서는 비즈니스적으로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영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은 나라에서 스리랑카를 바라본다면, 이미 자신들의 글로벌 밸류체인과 함께하는 존재이다.

이제 우리에게서 열려있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공유경제를 통한 스마트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한 발짝씩 전략적인 선택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 끝.

방글라데시에 다시 찾아오는 한국의 기회

김종원*

방글라데시는 ‘벵골의 땅’이라는 뜻이다. 남한 면적의 1.5배에 인구는 1억6천만 명이다. 언어적으로 벵골어를 사용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나라이며 이 지역은 방글라데시와 현재 인도의 콜카타(한때 영국령 인도제국의 수도)를 주도로 하고 있는 인도의 서벵골 주까지 포함한다.

인도 콜카타 출신으로 아시아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고 한국을 소재로 한 시 ‘동방의 등불’을 쓴 시인 타고르는 벵골어 문학의 대가로 방글라데시의 국가인 ‘황금 빛 방글라’를 작사, 작곡하였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꾸 인도가 섞여 나오는가? 이는 19세기 대영제국의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식민지배에 그 원인이 있다. 당시 영국령 인도는 중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인구를 과시하였는데 그 영토는 현재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포함한다.

말하자면 이들 세 나라가 한 나라인 영국령 인도제국이었으며 1947년 독립하면서 영국에 의해 인도와 파키스탄(방글라데시 지역도 포함)으로 분리되고 현재의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 현재의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으로 불리다가 1971년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치의 첫 발을 내 던지게 된다.

* 現 KOTRA 네팔 다카무역관장
前 KOTRA 산토도밍고, 뉴욕 등 다수 무역관 근무

힘난한 여정

방글라데시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7년 기준 1,466불이다. UN이 정한 전 세계 최빈국 48개국 중 하나다. 1971년 독립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외부 세계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방글라데시는 세계경제의 성장 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가장 큰 원인은 정치적 불안정, 정부의 거버넌스 부족이다. 그동안 2명의 국가 원수가 암살당하고 수차례의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1억6천만 명의 작지 않은 나라를 이끌어 가기에 통치력과 행정력이 역부족이었다. 단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각국 부패인식지수도 2016년 기준 전 세계 176개국중 145위에 머무르고 있다. 1971년의 송고한 독립 정신이 아직까지 그 꽃을 화려하게 피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정력 부실은 결국 비정부기구(NGO)나 구호단체들의 주 활동무대가 되어 UN이나 각국 원조 및 구호 단체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 NGO중 현지의 그라민(Grameen) 은행은 빈곤층을 위한 소규모 용자를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을 주로 하였는데 1983년 설립되어 한때 지점 2,000개 이상, 용자규모도 3조원이 넘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설립자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박사는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당초 빈곤층을 고리대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출범한 그라민 은행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친 이윤추구, 강압적인 채권회수, 외국 원조자금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리 의혹 등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시중 은행의 부실도 문제다. 사실 방글라데시 경제의 가장 큰 뇌관 중 하나가 은행의 부실 채권이 아닐까 한다. 정치권과 연계된 혹은 자체적인 부실 대출은 은행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위험뿐 아니라 당장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대다수 빈곤층의 피와 땀이 일부 상류층의 살만 찌우는 꼴이 되고 만다.

이러한 인위적인 비효율성에 더하여 자연환경도 결코 녹록치 않았다. 벵골지역을 강타하는 사이클론은 매년 이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는데 1970년에는 50만 명, 1991년에는 14만 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였으며 매년 폭풍과 홍수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탈출하는 로힝야족 문제는 1억6천만 명 이나 되는 거대 인구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느 작은 나라의 인구에 버금가는 엄청난 숫자의 난민을 떠 맡아야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들 로힝야족은 원래 방글라데시에서 살다가 영국의 식민지 시절 정치적 필요에 의해 강제로 미얀마로 이주된 소수민족으로 종교도 불교가 아닌

이슬람으로 최근 불교국 미얀마의 인종청소에 버금가는 학살로 100만 명에 육박하는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하였다. 100만명의 탈북자가 넘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그래도 아침이면 1억6천만 명이 눈을 뜬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는 서울의 절반 크기인데 인구는 1,800만 명이다. 도시 어느 지역, 어느 골목을 가더라도 그 야말로 인산인해다. 모두가 바쁘다. 열심히 무얼 한다. 결코 녹록치 않았던 역사와 시련, 수많은 사람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극복할 수 있는 시련은 인간을 더 단단하게 성장시킨다. 물질적인 환경이 좋아서 혹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경쟁할 필요가 없거나 자연환경이 도와줘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을 부양하고 그럭저럭 살아 갈 수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 이곳은 아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1억6천만 명이 그래도 아침이면 눈을 뜨고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몸을 던진다. 저마다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꾼다. 금융전문지 배런스(Barron's)는 방글라데시 중산층 및 고소득층 성장 잠재력이 아시아 국가에서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방글라데시가 지난 7년간 연간 6~7%의 고속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점에 기인하고 있으며 시장 잠재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1천만 명이 넘는 방글라데시인 들이 전 세계에 파견되어 매년 자국 GDP의 10%에 버금가는 외화를 국내로 송금하고 있는데 수출과 더불어 제2의 외화수입이며 자국 경제의 핵심 축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에도 매년 1,000~2,000명의 방글라데시인들이 근로자로 파견되는데 현재 17,000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다.

그리고 인구의 30%가 10 ~ 24세에 해당한다는 UN의 보고서만 보더라도 절대적인 인구도 많지만 젊은 층의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 성장의 또 다른 기반이 되고 있다.

한국 기업은 방글라데시 섬유산업의 모태

우리 기업들은 젊은 방글라데시의 이러한 잠재력을 보고 1970년대 후반부터 의류산업에 집중 투자하기 시작하여 방글라데시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의류수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8년 (주)대우가 방글라데시 정부와 봉제 합작투자를 한 것이 그 시초였으며 이후 대부분

의 봉제기업이 중국으로 갈 때 영원무역은 방글라데시에 본격적으로 의류공장을 확장하여 이곳에서 종업원 6만 명 이상의 가장 큰 봉제회사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기능성 아웃도어 의류와 신발을 주로 생산하여 The North Face, Nike 등에 납품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의도 면적의 3배에 이르는 300만평 이상의 거대한 KEPZ(Korea Export Processing Zone)을 확보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과 더불어 현지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현재 봉제 분야를 중심으로 150여개의 한국기업들이 투자 진출해 있으며 방글라데시 최대 수출 산업인 의류분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국가 수출의 80%를 의류산업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산업이다.

아직도 방글라데시의 인건비는 중국의 1/5, 인도의 1/2 수준으로 생산기지의 역할과 더불어 인구 1억6천만 명의 자체 시장으로서의 매력도 상당하여 중국을 대체할 Post China 국가로도 손색이 없다.

최근 우리기업들은 이러한 섬유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방글라데시를 전략국가로 분류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가 하면 10년전 철수하였던 국내 종합상사의 복귀, 방글라데시 에너지 산업의 골격을 바꿀만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대한 우리의 수출은 지난 5년간 매년 2 ~ 13%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다가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해 비로소 10% 이상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탈 중국 바람에 따라 현지 진출을 타진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야심

중국 시진핑 총리가 2016년 10월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향후 5년간 230억 불 규모의 인프라 구축관련 지원(Soft Loan)을 약속하였으며 주로 철도, 도로, 전력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국이 방글라데시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중국의 '21세기 新실크로드 계획'에 의해 방글라데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치타공(Chittagong) 항구는 우리나라의 부산항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방글라데시 최

대 항구인데 인도양에서 그 전략적 위치로 인해 중국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항구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 전략적인 위치를 기점으로 중국 본토로 향하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인도양 전역을 커버 할 수 있는 대규모 해군력과 상선들이 접안할 수 있는 컨테이너 기지를 구상하고 있다.



〈 방글라데시 및 주변 지역 〉

일본은 2014년 아베 총리의 방글라데시 방문 시 약 60억 불의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 (Soft Loan)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6년 다카시내에서 벌어진 테러사건으로 일본인 7명이 사망한 이후 방글라데시에 대한 모든 유·무상 원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오다가 2017년 7월 JICA(일본 국제협력기구, 우리나라의 KOICA에 해당)를 통해 총 6개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16억 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기 6개의 프로젝트는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6~2020) 및 ‘비전 2021’의 역점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방글라데시의 ‘비전 2021’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1971년 독립 후 50년째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독립 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방글라데시가 독립 후 반세기를 기점으로 최빈국에서 벗어나서 중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강력한 열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한국은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금년부터 향후 5년 동안 5억 불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양국 정부간 합의를 하였다.

세계 경제의 중심 이동, 방글라데시도 편승

1950년 이후, 세계 경제는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지금 아시아의 시대가 되었다. 일본, 한국, 중국에 이어 이제 인도가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방글라데시는 중국이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중국 시진핑 총리의 2016년 방글라데시 방문과 대규모 인프라 개발 지원을 필두로 하여 최근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한국기업의 텃밭이었던 방글라데시 최대 수출산업인 의류공장 매입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 시가의 1.5배를 주고도 기꺼이 인수하는 통 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포스트(Post China)를 실감하는 대목이다. 중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에 FTA 체결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중국과 인도에 인접하여 세계 경제의 2대 산맥의 중간에 끼어 있는 형국이다.

인접한 인도는 인구 13억 명, 중국은 14억 명, 방글라데시 인구 1억6천만 명을 합치면 거의 30억명의 거대한 시장의 한 가운데 방글라데시가 위치해 있다. 앞서 중국이 방글라데시의 인프라 투자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에 뒤질세라 인도도 2017년 향후 50억 불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인프라 개발에 45억 불, 군수조달에 5억 불을 지원하기로 하고 양국간 민간 핵관련, IT, 사이버 안보, 우주탐사 등 새로운 첨단 기술 분야에 까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처럼 방글라데시는 중국, 인도와 더불어 세계경제의 거대한 중심 이동에 편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연계하여 방글라데시 정부의 자체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경제특구(EZ: Economic Zone) 정책으로 산업부지 조성을 통한 신규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2010년 경제특구법을 제정하여 전국에 100개의 경제특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경제특구(EZ)는 기존의 수출자유구역(EPZ)을 모델로 하고 있다. 현재 8개의 국가가 운영하는 EPZ이 있는데 방글라데시의 최대산업인 봉제업의 총본산으로 국가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한국기업 영원무역에서 조성한 수출자유구역인 KEPZ(Korea Export Processing Zone)이 있는데 이는 유일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특별

EPZ으로 한국기업 특히 영원무역이 방글라데시 봉제산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시 경제특구(EZ)로 돌아가서, EZ 또한 기존의 EPZ와 동일하게 입주기업에 대한 Tax Holiday, 원자재 면세 수입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EPZ은 원칙적으로 100% 수출기업만 입주가 가능하나 EZ의 경우 일정 부분 내수 판매도 허용하는 점이 다르다.

최근 일본의 Honda사에서 오토바이 공장을 EZ에 설립하는 등 외국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 중국, 인도에서 각국 정부간 혹은 민간기업 차원에서 관심 있게 접근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경제가 최근 7년 동안 지속적으로 6 ~ 7%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해오면서 내수 시장의 매력도도 높아져 그 동안의 수입물량을 국내 자체 제조로 전환하는 추세여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수 판매가 가능한 EZ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여기는 한국의 고도 성장기 70년대

방글라데시는 2014년에 비로소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을 넘어섰다. 1971년 독립 후 43년 만에 겨우 1,000불을 넘어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지고 말하자니 이 나라는 워낙 인구가 많은 탓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경제성장 측면에서 그동안 어느 정도였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성장 속도만을 가지고 보면 이 나라가 지난 반세기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제 막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1인당 소득 1,000불 달성이후 불과 3년 만에 1,500불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의 경제 성장 추이〉

지표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GDP성장률	%	6.0	6.1	6.6	7.1	6.3
GDP	십억달러	150.0	172.9	195.1	221.4	247.2
1인당GDP	달러	951	1,084	1,210	1,358	1,466

자료:IMF

한국의 70년대를 돌아보자, 우리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 ~ 1971)은 지금의 방글라데시 경제 상황과 아주 유사한 면이 있다. 당시 한국은 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의 근대화에 주안점을 둔 기간이다. 주로 철강, 기계, 화학공업에 중점을 둔 공업화 전

락, 수출증진과 수입대체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 국민소득 향상, 기술수준과 생산성 향상 등이 주요 목표였는데 방글라데시의 현재 상황이 이와 매우 유사하게 맞아 떨어진다.

중국에 이어 전 세계 2위의 의류수출 국가라고는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그동안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을 빼고는 이렇다 할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 추세에 힘입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제조업이 급격히 발달하고 생필품을 비롯하여 가정용 가전제품과 첨단 핸드폰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공장설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가전회사들도 현지 회사와 기술 제휴 등을 통해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현지 기업들의 이러한 신규 공장 설립에 필요한 기계,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한국산 설비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으로부터 기술이전 혹은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경우가 특히 많은데 중국, 일본, 유럽의 어느 나라 보다는 한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산 설비의 성능과 가격이 가장 본인들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동안 의류산업에서의 한국기업과의 인연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방글라데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한다. 산업의 뼈대와 신경망이라고 할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살이 붙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데 도로, 에너지, 물류 분야가 특히 취약하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인프라 하나만 예로 들어 보자. 한 나라가 성장하는데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물류망을 예로 들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도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산에 해당하는 이곳의 치타공 항구와 수도인 다카를 연결하는 다카~치타공 도로는 국가 수출입 물량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국가 핵심 인프라에 속한다.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250km, 즉 서울 ~ 대전 정도인데 평소에도 6 ~ 8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도로가 낙후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민자 100억불 규모의 다카 ~ 치타공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통 시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에 개통되었으니 지금 방글라데시도 우리나라 70년대 고도 성장기의 초기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기회를 찾자.

한국은 70년대 이후 기적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성장의 견인차는 당연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의 성장이라는 것은 누구

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의 제조업은 성장을 멈추고 조선, 중공업 분야에서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그 자리를 중국이 채우고 미국과 유럽 등 거대시장에서의 보호주의 바람은 더욱더 한국경제를 숨 막히게 압박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어디로 가야할지,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 혹자는 이제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까지 한다. 그러나 우리의 내수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내수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애초부터 우리경제는 수출로 시작했고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80%에 육박할 정도이니 국내 보다는 해외시장에서 승부를 보지 않고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이나 기업 활동의 향후 전략이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투자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한다. 우리 경제가 어디서 길을 잃고 지금 이렇게 헤메고 있는지 다시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단순 제조업에 다시 올인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제 국내에서의 단순 제조업을 통한 수출은 분명 한계에 봉착했다. 그 단계를 넘어서 기술 및 서비스 중심의 '글로벌 오퍼레이션' 단계의 현지화 전략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내 연관 제조업 분야에도 새로운 수요와 자극을 주어 도약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글로벌 오퍼레이션, 현지화 전략을 누가 모르는 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국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80%가 넘는데도 해외 현장에서 느껴지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나 글로벌 오퍼레이션은 활기를 띠지 못하는 것일까?

역사적으로 사농공상(士農工商)에 오랫동안 젖어 있던 문화적인 배경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제 겨우 공(工), 즉 제조업 정도로 이 정도까지 왔다. 가장 천대 받던 상(商)의 정신, 즉 장사 혹은 사업개발(business development)에는 체질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특히 홈그라운드를 떠난 해외에서의 사업개발은 더욱더 그렇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지금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시대가 변했으면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최고의 생존 전략이니 우리도 변해야 한다. 과거를 돌아보고 약점을 파악해야 한다. 대충 변할게 아니라 확실하고 철저하게 변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해외진출에 필요한 각종 제도나 지원책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기업에서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고취시켜야한다. 한때 이곳 방글라 지역을 포

함하여 영국령 인도제국을 건설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있게 한 동인도회사를 생각해 본다. 그들의 식민지배 행태가 아니라 당시 국가 차원의 이 회사에 대한 적폭적인 지원과 이 회사의 개척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해가 지지 않는 대한민국은 아닐지라도 국가의 번영과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무엇인지 되짚어볼 대목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사실 우리가 새롭게 개척해야 할 시장은 척박하기 그지없다. 기본적인 생활 자체도 힘들 정도다. 이곳 방글라데시만 해도 전 세계 도시 생활여건 비교에서 140개 도시 중 139위다. 가장 살기 힘든 땅이다. 향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주목받는 이웃나라 인도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기성세대는 40년전 이 척박한 땅에 섬유산업의 씨앗을 뿌리고 화려한 꽃을 피웠다.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가 세계경제의 다음 총착역인 이곳에 기꺼이 몸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들을 탓 할 수는 없다. 그 만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가 차원, 기업차원에서의 제도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국내 분야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예산, 각종 기금 중 일부라도 좀 더 해외 쪽으로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누구에게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있나? 다만, 우리 경제가 해외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면 거기에 맞는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 국가 정책이고 기업 경영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국내 이슈로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우리의 이웃 중국과 일본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앞서 중국, 일본, 인도의 방글라데시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소개한 바 있다. 이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인가?

한국도 40년 전, 어느 나라 어느 기업도 찾지 않던 이곳 방글라데시에 첫 발을 내딛고 이 나라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의류산업을 태동시켰다. 이곳에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누리지 못하는 여의도 3배 크기의 ‘한국수출자유구역(Korea Export Processing Zone)’이라는 특별 공단도 운영하고 있으며 의류산업 분야에서 외국기업으로는 한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40년 전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아직도 의류산업에 국한된 이야기이다.

방글라데시는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70년대 공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의 길목에 서있는 셈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중국에서 인도로 인접국인 방글라데시 이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국내에만 안주하지 말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진출을 통한 ‘글로벌 오퍼레이션’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젊은 방글라데시와 함께

다시한번 한국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행히 방글라데시는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아직도 한국의 신화가 남아 있는 나라다. 이제 막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에서 탈피하여 공업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신제조업 분야에 이르기 까지 정부나 기업에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다. 두렵기도 하다. 이들은 앞서간 한국 경제의 기적을 알고 있다.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갈망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언어인 벵골어 문학의 대가, 아시아 최초 노벨상 수상자인 시인 타고르 (Tagore)가 한 세기 전, 한국을 이렇게 노래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한국은 하나의 등불이었다.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끝>

Abstract

After its independence in 1971, the country continues to face challenges in the areas of poverty, bureaucratic corruption, natural disasters like tropical storms and floods. And political instabilities and lacks of governance by the government have made the situation worse.

Instead of official government, various types of NGOs domestic and from other countries are working to help upgrade this country. Their per-capita income is US\$1,466 in 2017 but still belongs to some of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However, Bangladesh is changing now. The huge population of 160 million is moving in pursuit of their better life in the future. In the seven consecutive years since 2011, the country has been recorded GDP growth of 6 ~ 7% and according to this index, Bangladesh's economy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ones in the world.

The axis of the global economy has been shifted from America to East Asia like Japan, Korea and now China has also joined this process tremendously. But the axis is still moving to another place that can be called 'post China'. Recently they are focusing on India as well as China. India's economic growth already surpassed that of china's with the growth more than 7% annually. Bangladesh is also going along with the economic growth by the same rates as that of India. These trends are helping to accelerate the economic growth in South Asia.

In South Asia, Bangladesh shares the border with India and China is just nearby. Their total population will be about 3 billion including 1.3 billion of India, 1.4 billion of China and 160 million of Bangladesh which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se two big economic axes.

According to the situation, China, Japan and India are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Bangladesh in the infrastructure sectors including roads, bridges, harbors and power plants by pledging to give huge soft loans. The purpose of this kind of big support to Bangladesh is very clear. They want to expand their market shares and have a strong influence in the country.

Korea is now facing a lot of economic challenges that causes some stagnation in our export growth and has made our economic growth rates come down. Our Korea's economy is heavily dependent on international trade. Our trade dependency ratio marks almost 80% which is higher than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In order to recover our economic difficulties, we have to look back from where we started our economic growth at the beginning. Our country has pursued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s. But in order to increase the export volume, our industry has reached its limit. We have to find another solution like 'global operations'. We have to go out to the world looking for another business opportunities not confined in the domestic issues. Economic policies and system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lso have to be changed accordingly to support the overseas business activities.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 Bangladesh is very similar to our 70's economic boom period. There are a lot of business opportunities between Korea and Bangladesh.

In Bangladesh, Korean companies are pioneers in the garment industry sector which covers 80% of total export volume and make the country the world's 2nd biggest garment exporter after China. They have been contributing a lot to Bangladesh's economy for the past 40 years.

Bangladesh is now growing rapidly, industrializing in various sectors beyond the long lasting labor intensive garment field. They have never experienced this kind of situations before. That's why they are longing for our experiences of economic success and our technologies. I hope we can take this opportunity.

네팔의 인도-중국 균형전략

박정석*

1. 들어가는 말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나라로, 국경의 북쪽은 중국과 맞닿아 있고 서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은 인도와 접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 이외에 네팔과 가까운 나라로는 부탄과 방글라데시가 있다. 하지만 부탄과 방글라데시는 인도를 사이에 두고 약간 떨어져 있다. 지리적으로 네팔은 바다와 항구가 없는 내륙 국가이다. 네팔의 영토는 길이가 650km, 너비가 200km 정도의 직사각형 모양이며 총 면적은 147,181km²에 달한다. 국경은 총 2,926km이며 그 중 중국과 1,236km 인도와 1,690km를 접하고 있다. 네팔의 북쪽 산악지대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하여 전 세계 8,000m급 고봉 10개 중 8개가 있을 정도로 높고 험준하다. 남쪽 평원지대는 인도와 마주하고 있으며 테라이(Terai) 혹은 테라이(Tarai) 지역으로 불린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네팔은 두 거대 강국의 충돌을 완화시키는 정치적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다. 250년 전 통일왕국을 건설했던 프리트비 나라얀 샤(Prithvi Narayan Shah)

* 現 목포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인도 하이데라바드대학교 인류학 박사

국왕은 네팔을 ‘두 바위 사이에 낀 얀(yam)’으로 표현했다. 당시와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다르지만, 이 비유는 네팔의 정치적, 지리적 위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이라는 양 강대국 사이에서 네팔의 외교적 입지는 크지 않다. 네팔은 두 개의 바위 사이에 끼인 얀처럼, 자칫 잘못하면 곧바로 이지러질 처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을 뒤집어보면 두 바위 사이의 ‘얀’은 오히려 바위와 바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The Economic Times, 2017.07.27.).

네팔은 10년에 걸친 내전과 두 차례의 대대적인 민주봉기 이후 힌두왕정이 종식되고 연방제 민주공화국으로 전환되었지만 네팔의 국내정치는 지금까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잦은 정권 교체는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난제였던 새 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정치적 안정은 아직까지 요원한 실정이다. 국내 정치는 서로 기존의 정권을 흔들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려는 시소계임을 벌이고 있다. 2008년 이후 네팔의 정치는 네팔 국민회의당(Nepali Congress),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당[Communist Party of Nepal(Unified Marxist-Leninist)], 마오이스트 공산당[Communist Party of Nepal(Maoist-Center)]을 중심으로 여러 정당들이 서로 이합집산하면서 정권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회전문’ 정치 속에 빠져 있다(Sharma, 2016).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중국과 인도는 네팔을 가운데 두고 다방면에서 경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인도가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2008년 전제왕정이 붕괴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008년 민주공화국 성립 이후 10년 동안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을 증대시켜 왔다. 최근 중국은 기존의 조용한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인도가 그래왔던 것처럼 네팔의 국내정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15년 네팔의 신헌법 제정으로 네팔과 인도가 갈등관계에 접어들자 반대급부로 네팔과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 본문은 네팔의 정치적 상황을 네팔-인도, 네팔-중국 간의 관계 속에서 조명한 다음, 한국과 네팔 양국의 교류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네팔-인도 관계

네팔과 인도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대사에서 인도와 네팔의 공식적 관계는 1950년 ‘인도-네팔 평화 및 우호 조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Manas & Sharma, 2014). 네팔과 인도 중 어느 한쪽이 외부로부터

위해를 당할 경우 용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양국이 ‘특별한 관계’임을 대내외에 드러내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네팔 국민은 인도에서 인도인과 동등한 경제적 및 교육적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으며, 인도 국민 역시 네팔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도-네팔 간의 국경은 개방되었으며, 양국 국민은 비자나 여권 없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와 네팔은 언어, 종교, 문화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일부 지역은 혼인을 통해 국경 너머까지 밀접한 혈연관계를 맺고 있다.

양국 간의 밀월관계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1960년 이후 네팔 경제의 인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도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1962년 중국과 인도 사이에 국경 분쟁이 발생하면서 네팔과 인도 사이의 관계는 누그러졌다. 인도정부는 마헨드라(Mahendra) 국왕의 내각 해산에 반대하며 인도에 근거지를 두고 저항하던 네팔 반정부 세력에 대한 지원을 일시 중단했다. 1962년 중국과의 전쟁에서 인도군이 패퇴하면서 네팔은 조약 체결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되었다. 몇 차례의 비밀 협상 끝에 1965년 인도가 네팔군의 무기 공급 독점권을 갖게 됨에 따라 중국의 무기 수출 가능성은 차단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네팔이 무역 및 통행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우월적 자세로 남아시아 역내 국가를 통제하려는 인도의 시도에 위협을 느낀 네팔은 인도의 시킴(Sikkim) 병합을 공공연히 비난하였다. 1975년 비렌드라(Birendra) 국왕이 네팔을 국제 중립국으로 인정해달라는 제안을 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중립국 제안에 대해 중국과 파키스탄은 환영했지만, 인도는 기존 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며 인도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1984년에 다시 중립국 제안을 했지만 인도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네팔의 지속적인 중립국 주장은 중국의 후원에 힘입어 1990년 기준으로 112개국이 호응하였다(Kavitha, 2016: 11).

1978년 인도가 네팔의 오랜 숙원이었던 무역과 통행 조약의 분리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하지만 1988년 두 조약의 종료 시점이 도래하자 양국은 조약 연장 혹은 개정을 두고 갈등이 폭발했다. 무역과 통행 조약을 단일화하자는 인도의 주장을 네팔 측에서 거부하면서 양국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다. 두 번에 걸쳐 기한 연장이 있었지만, 결국 1989년 3월 23일자로 조약이 파기되었다. 조약파기는 인도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다. 1990년 4월까지 계속된 국경봉쇄는 네팔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다. 인도의 국경봉쇄는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이슈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1988년 네팔의 중국 무기수입이 있었다. 인도는 네팔이 중국의

무기를 수입하면서, 인도를 배제한 채 नेपाल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다.

인도는 국방과 경제를 결부시키면서 인도와의 ‘특별한 관계’를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았다. 국경봉쇄는 नेपाल을 경제적 위기에 빠트렸지만 역설적으로 정치체제가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90년 비렌드라 국왕이 다당제 입헌군주제 도입을 허용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정부는 인도와의 관계를 재빨리 복원시켰다. 1990년 6월 뉴델리에서 양국 수상이 만나 ‘특별한 관계’ 복원에 합의하였다. 1991년 12월 무역과 통행이 분리된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면서 नेपाल 경제의 인도 종속은 고착화되었다. 1996년 인도와 नेपाल은 콜카타에서 नेपाल로 이어지는 안전한 물류 이송로 확보를 위해 마하칼리(Mahakali) 강에 댐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의 상호 신뢰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이다.

2006년 नेपाल 국회에서 당시까지 의견이 분분했던 새로운 시민법을 통과시킴으로써 4백만 명에 달하는 인도계 이주민들이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개정된 시민법에 대해 인도 정부는 환영의 뜻을 피력했지만 नेपाल 지배층에서는 인도계 이주민의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08년 마오이스트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다. 신임 수상으로 취임한 프라찬다(Prachanda, 본명은 Pushpa Kamal Dahal이지만 마오이스트 반군 시절 불렀던 별칭 ‘프라찬다’로 널리 알려져 있다)가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 간의 관계를 돈독히 구축하자며 친 인도적인 성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인도 정치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인도를 먼저 방문했던 관례를 깨고 중국을 먼저 방문한 다음 인도를 나중에 방문한 마오이스트 지도자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후 프라찬다는 국방 사령관의 경질을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사임하고 말았다. 그는 국방사령관이 친인도 성향이라 판단하고 경질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물러났던 것이다. 프라찬다는 자신의 사임에 인도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이라 피력했다.

인도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नेपाल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도 수상이 카트만두를 공식 방문했다. 2014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nendra Modi) 수상이 नेपाल을 방문하여 10억 달러에 달하는 무상 원조를 약속하였으며 이후 양국은 900MW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2016년 인도는 지진복구를 위해 2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인도의 유화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국경선 분쟁과 정치적 문제로 नेपाल 내부에서는 반-인도 정서가 점증하고 있다.

2015년 9월 नेपाल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신헌법 공포 직후 곳곳에서

소요가 발생했다(Huges, 2016: 3). 소요의 주요 원인은 신헌법에서 마련한 연방의 숫자와 경계 설정에 대한 불만이였다. 특히 인도와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테라이 지역 마데시(Madhesi)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2007년의 봉기와 마찬가지로 마데시들은 연방의 숫자와 경계 재조정을 요구하며 카트만두로 이어지는 인도-네팔 사이의 주요 도로를 봉쇄하였다(박정석, 2017). 도로봉쇄로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석유와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부족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네팔 지배층 및 산록주민들은 인도정부가 간접적으로 마데시로 불리는 인도계 주민들의 도로 봉쇄를 지원하면서 네팔의 정치적 독립을 저지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력하였다. 인도정부는 인도-네팔 국경봉쇄는 전적으로 마데시가 주도하고 있으며, 인도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경봉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10월 새로운 수상이 선출되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네팔에서는 반-인도 정서가 확산되었으며 양국 간의 관계는 봉고직전까지 내몰렸다. 2016년 5월 네팔 대통령이 예정되었던 인도 방문을 취소하자 인도의 모디 수상 역시 2016년 5월 21일 룸비니에서 개최될 ‘부처탄생 축제’ 참석을 취소했다. 네팔은 주인도 네팔 대사 소환으로 대응했다. 2016년 3월 올리(Khadga Prasad Oli) 수상이 뉴델리 방문 직후 전격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네팔-인도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Huges, 2016: 4). 베이징에서 올리 수상은 중국과 여러 협상을 체결했다. 특히 중국-네팔 간의 도로망 확장 합의는 인도의 네팔 무역로 독점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7월 올리 정부가 퇴각하고 마오이스트 공산당이 정부를 구성하면서, 신임 수상 프라찬다는 먼저 베이징에 특사를 파견하여 중국 정부를 안심시켰다. 또한 프라찬다는 내각을 구성하기 전에 뉴델리에 특사를 파견하여 인도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런 기조는 한편으로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실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네팔이 인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음을 인도 정치권에 보여준 행보였다. 인도 정치권은 프라찬다의 수상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2008년 프라찬다가 수상으로 취임했을 때 친-중국 성향을 보였었기 때문이다. 최근 네팔과 인도는 정치·외교적으로 과거의 불균형적 관계에서 탈피하여 점차 균형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2017년 8월 23일 네팔 국민회의당 소속의 신임수상 테우바(Sher Bahadur Deuva)는 인도를 먼저 방문하면서 인도정부를 안심시키는 행보를 하였다(Hindustan Times, 2017.08.24.).

3. 네팔-중국 관계

1951년 티베트가 중국의 자치구로 편입되면서 티베트의 중국 복속을 반대하는 수많은 티베트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로 넘어왔다. 그 중 일부는 네팔을 거쳐 인도에서 안식처를 마련했지만 대부분은 언어와 종교가 유사한 네팔에 정착했다. 현재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네팔에서 살고 있다. 이전까지 완충지대였던 티베트가 중국에 복속되면서 네팔이 지리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네팔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은 중국과 인도를 빼고는 논의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양국의 영향력이 거세지고 있다(Campbell, 2012: 4).

네팔과 중국 간의 공식적 관계는 1955년 8월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시작되었다(The Economic Weekly, 1955.09.03.). 1960년 4월 ‘중국-네팔 평화 및 우호 조약’이 체결되면서 양국 간 교류의 폭이 확대되었다. 네팔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및 연대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국내 정치·경제의 인도 의존도를 감소시키려 하였다(Pant, 1962). 네팔-중국 간의 관계는 1960년 3월 국경분쟁이 해결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당시까지 중국은 네팔이 인도의 영향권에 속해 있다고 판단하고 인도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1962년 중국과 인도가 전쟁에 돌입하면서 네팔은 양국 사이에 낀 존재가 되었다. 네팔에 대해 우월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던 인도와 달리 중국은 유화적인 자세로 접근했다. 1975년 시킴이 인도에 병합되자 네팔은 인도 편향적 외교에서 양국 균형적 외교로 방향을 전환했다. 1975년 이후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방식으로 네팔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관계를 진전시키고 있다.

과거 네팔왕실은 체제유지를 위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네팔왕실은 왕정 반대 세력을 옹호하는 인도의 영향력을 감쇄시키고자 중국을 대항세력으로 끌어들이었다. 인도와 미국이 네팔 반군세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중국은 힌두왕실을 지원했다(Jaiswal, 2014: 2). 이에 네팔왕실은 노골적으로 친-중국 성향을 드러냈다. 중국은 겉으로는 네팔 국내정치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기존체제를 옹호하였다. 1988년 비렌드라 국왕이 마오이스트 반군 진압을 명목으로 중국으로부터 대공포 도입을 결정하자 인도가 여기에 반발하여 1989년부터 1990년까지 경제제재를 단행하였다. 네팔로 연결되는 거의 모든 도로가 봉쇄되면서 네팔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인도는 국경봉쇄로 자국의 안보와 경제가 네팔과 직결되어 있으며, 중국이 인도를 대체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시켰다.

하지만 2008년 네팔이 민주공화국으로 전환되자 힌두왕국을 지원했던 중국은 네팔과의 외교관계를 재정비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정부의 선택은 친-인도 성향의 국민회의당을 멀리하고 반-인도 및 반-미국 정서가 강한 마오이스트 공산당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다. 이런 선택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티베트 망명정부와 네팔의 연대를 경계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중국은 마오이스트 반군을 진압하려는 네팔왕실에 무기를 공급한 유일한 국가였지만, 2008년 4월 마오이스트 공산당이 집권 정당으로 부상하자 곧바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마오이스트 공산당의 당수 프라찬다는 수상으로 취임한 뒤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에 맞추어 중국을 방문했다(Jaiswal, 2014: 3). 네팔의 수상이 취임 이후 제일 먼저 인도를 방문했던 관례를 깨고 중국을 먼저 방문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프라찬다의 외교적 행위를 두고 인도에서는 마오이스트 집권당이 친-중국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하였다.

2008년 이후 중국은 경제, 군사, 외교,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서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네팔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최근까지는 인도가 네팔의 최대 투자국이었다. 2009년 기준으로 인도는 총 외국투자 자본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11%였다(The Hindu, 2010.11.16.). 2009년 4월 양국이 상호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부터 중국의 대 네팔 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DG Trade, 2011.06.08.). 중국은 네팔의 수력발전소 건설과 무기지원에서도 거액을 원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직접원조가 아닌 용자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 중국과 네팔은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을 잇는 770km 길이의 철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티베트 라사(Lhasa)와 네팔의 국경 도시 카사(Khasa)가 연결되면 향후 남아시아 지역의 무역과 정치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라사-카사 간 철도가 개통되면 네팔의 무역통로가 다변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인도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네팔은 일방적인 인도 의존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의 입장에서 철도 연결은 네팔에 대한 영향력 감소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전역에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됨을 의미한다(Campbell, 2012: 6). 철도가 연결되면 24시간 이내에 중국군이 인도 국경까지 진입할 수 있다. 2011년 중국군 총사령관이 네팔을 방문하면서 양국 간의 군사적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2015년 인도에서 네팔로 이어지는 국경이 봉쇄되면서 네팔에서는 생필품 품귀현상이 발생하였다. 네팔은 중국을 통해 일부 생필품을 들여오면서 위기상황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네팔과 인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면 될수록 중국이 영향력이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

다.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당의 올리 정부가 중국과 무역 및 통상 조약을 체결하자 대외교역을 독점하고 있었던 인도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졌다. 올리 정부가 물러난 뒤 마오이스트 공산당 소속의 프라찬다가 다시 수상으로 취임하자 인도정부는 नेपाल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자 했다. 프라찬다는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관계를 시도하였다. 프라찬다는 내각구성 한 달 뒤 인도를 국빈방문 했다. 프라찬다의 인도 방문 이후 곧바로 인도 대통령(Pranab Mukherjee)이 नेपाल을 방문했다. 인도 대통령의 नेपाल 방문은 18년 만에 처음이었다. 반면 2016년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진핑 주석이 नेपाल을 방문하려 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연합뉴스, 2016.06.10.), 2017년 현재까지 양국 간의 국빈방문은 성사되지 않았다.

2017년 4월 중국 인민해방군과 नेपाल군과 역사상 처음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연합뉴스, 2017.04.17.). 명목상으로는 테러를 대비한 훈련이었지만 नेपाल의 심장부인 수도 카트만두까지 중국군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नेपाल의 '만형' 행세를 했던 인도에게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중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은 1950년 인도와 체결했던 '평화 및 우호 조약'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조약에 따르면 नेपाल이 인도가 아닌 제3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할 경우 인도에 알리거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नेपाल은 조약을 수정함으로써 안보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인도는 नेपाल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지만, 남아시아에서 이미 नेपाल-미국, नेपाल-인도, 인도-중국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Bhattarai, 2017). 중국의 재정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नेपाल은 인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동참한다는 협약서에 서명하였다(뉴스타운, 2017.05.12.).

2017년 6월 부탄-인도-중국 사이에 위치한 좁은 회랑지대인 도크람(Doklam) 혹은 중국에서는 동랑(洞郎)이라 부르는 지역에서 중국군과 인도군 사이에 전투가 발생하면서 नेपाल은 정치적으로 입장표명이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정만영, 2017). 도크람은 인도 북동부 지역을 관통하는 실리구리 회랑과 이어진 곳이다. 실리구리 회랑은 인도의 북동부 지역과 인도 아대륙을 분리시킬 수 있는 곳으로 '닭의 목'에 비유되는 전략적 지역이다(이장훈, 2017). 거대 양국 사이에서 नेपाल은 등거리 외교를 표명하고 있지만,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와 신규 투자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Basu, 2017). 인도는 नेपाल이 인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중국은 नेपाल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기를 원하고 있다.

4. 한국-네팔 관계

한국과 네팔 사이의 공식적 관계는 1969년 5월 양국 간 영사관계 수립을 합의하고, 같은 해 7월 영사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1972년 6월 한국 정부에서 네팔에 주 카트만두 총영사관을 설치하였다. 1974년 5월 정식으로 외교관계가 수립되면서 총영사관은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네팔은 2007년 3월 서울에 주한 네팔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최근까지 네팔과 한국 간의 정치적인 교류가 많지 않았다. 네팔은 북한과 1974년 6월 대사급으로 외교관계를 체결하였다.

한국에서 네팔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히말라야 산악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전문 산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등반과 트레킹을 위해 네팔을 찾고 있다. 네팔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관광을 위해 네팔에 입국하는 한국인은 2016년 기준으로 25,171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3.34%에 달한다. 참고로 인도가 118,249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15.7%, 중국이 104,005명으로 13.81%를 차지하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Tourism & Civil Aviation, 2016).

네팔 사람들은 주로 장단기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2004년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실시되기 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많은 네팔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했다. 2007년 한국정부는 네팔정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국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국내체류 외국인 중 네팔인은 36,013명이다(법무부, 2017). 네팔은 한국 체류 외국인이 12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통로와 더불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소위 ‘불법’노동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네팔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난다. 2017년 현재 네팔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네팔 사람은 대략 80,000명이다(www.nepal.gov.np/NationalPortal). 한국은 인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네팔 이주노동자가 많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과 네팔의 실질적인 경제교류는 197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7년 한국과 네팔은 대외경제협력기금 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네팔의 건설, 양잠업, 수력발전, 도로 및 사회기반시설, 보건, 정보화산업 등 여러 분야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네팔의 정보, 보건, 교육, 기술지원, 기간시설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공적원조를 하고 있다. KOICA는 무상 원조와 기술제휴 방식으로 네팔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한국정부는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에 옵서버(observer) 자격을 획득하면서 남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경제 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간 교류와 더불어 국내 기업들의 네팔 진출 및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5. 맺음말

2008년 네팔은 힌두왕정 국가에서 연방제 민주공화국으로 전환되었다. 네팔은 240년 동안 종교적으로 ‘힌두’국가였으며 국왕이 국가의 수반이었던 왕국이었다. 힌두왕정 국가에서 연방제 민주공화국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여러 차례의 민중봉기와 마오이스트 반군 주도의 인민전쟁이 있었다. 힌두왕정이 종식되고 민주공화국이 성립되었지만 네팔의 국내정치는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네팔 국내정치의 불안정은 ‘회전문’식 다당제 정치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네팔을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 네팔 정치권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어렵게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네팔정부 앞에는 두 거대 강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감행해야하는 험난한 여정이 도사리고 있다.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내외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네팔의 정치적 상황은 한국의 상황과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강국들 사이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대동소이한 것 같다. 네팔과 한국의 정치적 교류는 아직까지 일천한 수준이지만 경제적인 교류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네팔의 정치적 경험과 외교적 전략은 한국이 남아시아로 진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정석, 2017, 「네팔의 연방제 전환과 정체성의 정치: 2007년 마데시 봉기를 중심으로」, 『남아시아연구』 22(3): 59-87.
- 법무부,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내부용 통계월보』 2017년 8월호.
- 이장훈, 2017, 「히말라야 파워게임 중국-인도 국경분쟁」, 『통일한국』 vol. 404: 50-53.
- 정만영, 2017, 「중국-인도 국경분쟁의 진행 상황과 국제정치적 함의」,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http://yonseisinology.org/archivee/2224>, 검색일 2017.10.17.)
- Basu, Narayani 2017, “Nepal-China-India: Three’s a Crowd?”,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7/08>).
- Bhattari, Kama Dev 2017, “India and China’s Tug of War Over Nepal”, *The Diplomat* (2017.01.06.).
- Campbell, Ivan 2012, “China and Conflict-affected States: Nepal Case Study”, *Saferworld* (<https://www.saferworld.org.uk>).
- Huges, Lindsay 2016, “India-Nepal Relations: From Dominance to Equality”,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Strategic Analysis Paper*(2016.08.18.).
- Jaiswal, Pramod 2014, “Caught in the India-China Rivalry Policy Options for Nepal”, *Institute of Peace and Conflict Studies Issue, Brief #249*.
- Kavitha, K. K. 2016, “The Changing Paradigm of India-Nepal Relation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s of Research in Business and Management*, vol.4(5): 10-15.
- Manas, Natasha & Mamta Sharm 2014, “The 1950 Treaty of Peace & Friendship: An Issue of Contention between India and Nepal”,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and Research Publications*, vol. 4(11): 1-5.
- Ministry of Culture, Tourism & Civil Aviation, 2016, *Nepal Tourism Statistics 2016*.

- Pant, Y. P. 1962, “Nepal-China Trade Relations”, *The Economic Weekly*(1962.04.14.).
- Sharma, Gopal 2016, “Nepal Picks Maoist as PM, amid Revolving-door Politics”, *Reuters*
(<http://www.reuters.com/article/us-nepal-election>, 검색일 2017.10.06.)
- Sood, Rakesh 2016, “India-Nepal-China Relations & A Development Strategy For Nepal”,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Issue Brief, Issue No. 154.
- 『뉴스타운』, 2017.05.12.
- 『연합뉴스』, 2016.06.10.
- 『연합뉴스』, 2017.04.17.
- European Commission DG Trade*, 2011.06.08.
- Hindustan Times*, 2017.08.24.
- The Economic Times*, 2017.09.27.
- The Economic Weekly*, 1955.09.03.
- The Hindu*, 2010.11.16.
- www.nepal.gov.np/NationalPortal(검색일 2017/10/17).

Abstract

Nepal is located between India and China. This means that Nepal is a paramount concern for her security and stability between those countries. Both countries consider the other as competitor. India exerts greater influence over Nepal than China due to geographic, religious and cultural factors. Nepal can not get rid off its economic dependence upon India quickly. Nepal suffered from a decade long war that ended in 2006. Since the end of war, China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ts engagement in Nepal through a variety of means. However Nepal continues to experience politically instability and low level insecurity, so building peace and stability remains a priority of the country. Nepal tries to keep balance strategy between India and China, but it is very difficult way because it relied on internal politics of Nepal as well as outside situation of both big countries.

key words: Nepal, India, China, balance strategy, economic dependence, political instability

인도 서부권역의 핵심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이대우*

Maharashtra and Gujarat are the leading states of Western part of India in terms of economic growth. Maharashtra has many advantages like a financial hub of Mumbai, a center of container logistics and the largest economic size in India, whereas Gujarat lacks those advantages but has strong entrepreneurship led by former chief minister Mr. Modi. Both states have more business friendly attitude toward foreign investors than eastern part of India. The cooperation with both states may provide more business opportunity to Korean companies which are willing to make foray into India.

들어가는 말

인도의 수도는 델리이다. 하지만 인도의 경제적 수도는 뭄바이(Mumbai)라고 알려져 있다. 뭄바이는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연중기온이 비교적 일정하며, 여름에 델리에서 겪는 지

* 現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 석사

독한 흑서에 시달리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과거부터 부유한 상인, 기업가들은 뭍바이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으며, 뭍바이는 상업이 번창한 도시로 유명해졌다. 뭍바이를 품고 있는 마하라슈트라주는 뭍바이의 경제적 영향력을 배경으로 인도 내에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마하라슈트라주의 북쪽에서 인접한 구자라트주 또한 지역민들의 강한 상인기질을 이용하여 꾸준히 성장해 왔다. 구자라트주는 광물자원이 빈약하고 농경지도 척박한 땅이지만, 산업과 상업 육성에 힘을 기울인 결과 인도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의 모디 총리가 주 수상으로 재임한 시기에 구자라트주는 이전보다 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인바 있다. 인도 서부권역에 여러 주(state)가 있으나, 마하라슈트라주와 구자라트주는 서부권역 경제의 핵심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인도 경제를 대표하는 주로서 설명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두 지역 모두 해안가를 끼고 있어 외국과의 교역에 매우 편리할 뿐만 아니라 내륙지역으로 이어지는 관문의 역할 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대인도 진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지역을 심층 분석하는 것은 향후 인도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기업들에게 큰 전략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마하라슈트라주 (Maharashtra)

1-1. 마하라슈트라주 개요

마하라슈트라주는 인도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은 해안가, 북서쪽으로는 구자라트(Gujarat)주, 북쪽으로는 마디야 프라데쉬(Madhya Pradesh)주, 동쪽으로는 차티스가르(Chhattisgarh)주, 남동쪽으로 텔랑가나(Telangana)주, 남서쪽으로 고아(Goa)주, 남쪽으로 카르나타카(Karnataka)주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면적은 307,690 제곱킬로미터로 인도에서 세 번째로 큰 주이며 대한민국(북한 영토 제외)의 3배에 이른다. 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1억1200만명으로 2억명인 U.P주에 비해 인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인구의 약 70%는 마하라슈트라 지역 언어인 마라티(Marathi)를 사용하며, 30%는 인접한 지역의 언어를 쓰는데, 특히 북인도 우파르 프라데쉬(UP: Uttar Pradesh)주 인구 유입이 많아 과거부터 이주민과 지역민들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요소비용으로 측정한 지역경제규모(Gross State Domestic Product at Factor Cost)는 2015년 18조 루피(약 360조원)에 달해 인도 전체 GDP의 약 15%를 점유하며, 2위인 타밀나두(Tamil Nadu)주의 10조 루피에 비해서도 월등히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Hand book of statistics on Indian states, RBI, 2016-17)

마하라슈트라주의 중요한 도시로는 첫 번째로 인도의 경제적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뭄바이를 들 수 있다. 인구 1800만명의 뭄바이는 마하라슈트라주의 주 수도이면서 인도 증권거래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도 굴지의 재벌들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타타(Tata)그룹, 릴라이언스(Reliance)그룹, 에싸르(Essar)그룹, 비를라(Birla)그룹, JSW그룹, 고드레즈(Godrej)그룹, 마힌드라(Mahindra)그룹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인도의 대기업 상당수가 뭄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뭄바이는 볼리우드(Bollywood)라고 불리는 힌디(Hindi) 영화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벵갈/타밀어 영화와 함께 인도 영화 산업의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 311만명이며 과거 교육으로 유명했지만 지금 신흥 공업단지로 부상하고 있는 뿌네(Pune)가 있으며, 세 번째로 인구 240만명이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면서 농업, 특히 오렌지로 유명한 나그푸르(Nagpur) 그리고 네 번째로 인구 148만명으로 델리-뭄바이 산업회랑의 중요한 기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업이 발전한 나시크(Nashik) 등을 주요 도시로 들 수 있다.

마하라슈트라주는 역사적 유적지가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이 지역에 강력한 힌두 왕국이 다수 세워졌으며, 인도 북쪽에 위치한 이슬람 왕국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역사 유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아잔타(Ajanta) 엘로라(Ellora) 석굴이 위치한 아우랑가바드(Aurangabad)를 들 수 있다.

1-2. 마하라슈트라주 경제 및 산업

마하라슈트라주의 경제는 2016-17 회계연도에 전년대비 9.4% 성장하였다. 산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수산업으로 구성되는 1차 산업이 전체의 11.8%를 점유하고, 광공업, 건설업으로 구성되는 2차 산업이 33.8%, 서비스업으로 구성되는 3차 산업이 54.4%를 점유한다. 인도 전체와 비교해 보면 1차 산업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마하라슈트라주는 공업과 상업이 발달한 지역답게 농업에 의존하기 보다 공업과 서비스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표 1〉 마하라슈트라주 경제 산업별 구성비 (2015-16 회계연도)

(단위: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마하라슈트라주	11.8	33.8	54.4
인도 전체	18.0	30.6	51.4

자료: Economic Survey of Maharashtra 2016-17

이로 인해 인당 국민소득도 인도 전체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도 전체 기준으로 2015-16 회계연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94,178루피를 기록했으나, 마하라슈트라의 경우 147,399루피를 기록해 카르나타카, 타밀나두 등과 함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마하라슈트라주, 그 중 특히 뭄바이는 인도 금융의 중심지이다. 먼저 마하라슈트라주가 인도 금융업 GDP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2014-15 회계연도에 마하라슈트라주의 은행보험업종 GDP 금액은 현재가격기준으로 1조6천억 루피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위를 기록한 델리의 7천억 루피의 두 배를 크게 뛰어 넘는다. (Handbook of statistics on Indian States 2016-17) 금융업에서 마하라슈트라주는 다른 주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인도의 경제 수도라 불리는 뭄바이가 있다. 뭄바이에는 인도 중앙은행이 위치해 있고, 인도 봄베이 증권거래소(BSE: Bombay Stock Exchange)와 내셔널 증권거래소(National Stock Exchange)도 위치해 있다. 그리고 State Bank of India, HDFC Bank, ICICI, Kotak Mahindra Bank, Yes Bank와 같은 주요 은행들의 다수가 뭄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콜카타, 델리, 첸나이, 하이데라바드 등 다른 경쟁 도시들에 비해서도 그 수는 월등히 많다.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 다수가 뭄바이에 거점을 두게 됨에 따라 마하라슈트라주의 경우 다른 경쟁 주에 비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매우 수월한 편이다.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것은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데 있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며,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 확장할 거점으로 마하라슈트라주를 선택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마하라슈트라주는 또한 인도의 대표적인 물류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뭄바이의 자와할랄 네루 포트(JNP: Jawaharla Nerhu Port)는 인도 최대의 컨테이너항이며, 인도가 취급하는 컨테이너 물량의 40%를 소화하고 있다. 여기서 해외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들은 섬유, 섬유기계, 육류(meat), 화학 및 의약 제품 들이며, 해외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들은 화학 제품, 기계류, 플라스틱, 전기기계,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과 식물성 유지 등이다. 뭄바이로 유입되는 화물들은 주로 마하라슈트라, 마드야 프라데쉬, 구자르트, 카르나타카를 비롯해 북 인도 전역으로 운송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델리와 뭄바이를 잇는 화물철도망이 건설되고 있으며, 이 철도망을 따라 산업공단이 형성되는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elhi Mumbai Industrial Corridor, 이하 DMIC)이 건설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과거 델리-뭄바이-콜카타-첸나이를 잇는 황금사변형 루트를 따라 화물전용 철도망(DFC: Dedicated Freight Corridor)를 건설하고 하였으며, 1단계로 델리와 뭄바이를 잇는 서부권

망과 델리와 콜카타를 잇는 동부권망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철도망을 따라 산업단지들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를 산업회랑이라고 하는데 인도의 산업회랑은 도쿄-오사카 산업회랑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DMIC(델리-뭄바이 산업회랑)는 델리, 우따르 프라데쉬(Uttar Pradesh), 하리아나(Haryana), 라자스탄(Rajasthan), 구자라트(Gujarat),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의 6개 주를 연결하며, 총 길이 1,483km 폭 300km의 권역을 확보하며 이 권역에 소속된 인구만 1억7천만명에 이른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전용 화물철도망 건설이 주가 되며, 각 거점 도시에는 공항과 농산물 가공 공장, 발전소 등이 신규로 건설될 예정이다. 총 투자규모만 1천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전용 철도망이 완성될 경우 뭄바이의 JNP 항구에서 델리까지 현재 14일 걸리던 화물 운송 시간이 14시간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라자스탄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들은 비교적 순조롭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나, 라자스탄주의 경우 토지 수용 문제를 둘러싼 농민들의 반대가 심해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마하라슈트라주는 제조업을 포함한 2차 산업이 다른 주에 비해 비중이 높다는 점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인도는 과거부터 섬유, 의류관련 제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면화에서 실을 추출하여 원단을 만들고 이를 가공하여 의복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마하라슈트라주에 있는 Welspun이라는 인도 기업은 철강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름에서 보듯이 면직물을 가공하는 섬유/의류업이 이 기업의 모태이다. 마하라슈트라의 섬유, 의류업의 발달은 Raymond, Siyaram, Bombay Dyeing이라는 브랜드를 육성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핵심 제조업으로 간주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도 마하라슈트라주의 비중이 매우 크다. 인도의 자동차 생산 권역은 크게 4개로 나뉜다. 델리/편잡/하리아나/라자스탄/UP주가 소속된 인도 북부권과 구자라트/마하라슈트라주가 중심인 서부권, 타밀나두/안드라 프라데쉬/카르나타카주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끝으로 자르칸드/웨스트벵갈주가 중심인 동부권이다. 북부권에는 혼다, 마루티스즈키가 진출해 있으며, 동부권에는 타타자동차와 힌두스탄자동차가 주력 생산기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남부권에는 현대자동차, 닛산/르노, 도요타 등이 진출해 있으며, 서부권, 특히 마하라슈트라주에는 승용차의 경우 마힌드라&마힌드라, 타타자동차 등 인도 로컬 업체를 포함해 GM,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피아트 등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고, 상용차의 경우 아쇼크 레이랜드(Ashok Leyland), 바자즈 오토(Bajaj Auto), 포스 모터스(Force Motors), 만 트럭(MAN Trucks), 현대건설기계 등이 진출해 있다. 마하라슈트라주는 교통과 물류가 발달하고 금융 중심지인 뭄바이를 배경으로 두고 있으며, 인도

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에 높은 소득수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생산과 소비에서 인도를 리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 완성차 공장 부근에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동반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자동차 산업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대표적인 자동차 산업단지들이 위치한 곳으로는 뿌네(Pune)와 나시크(Nashik)시가 있으며, 이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동차 강판 생산 공장, 강판 가공 공장, 각종 부품 업체들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1-3. 마하라슈트라주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인도 상공부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외국인의 대인도 직접투자 금액 전체의 31%가 마하라슈트라주에 투자되었다. 인도 중앙은행 뭄바이 지점에서 집계한 데이터는 마하라슈트라주와 일부 연방직할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연방직할지들은 과거 포르투갈 관할 지역이었다가 인도가 병합한 곳으로 인구가 적어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를 뺀다고 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마하라슈트라주 다음으로 투자가 많이 집계된 곳은 델리 지점으로 이 곳은 델리주와 우타르 프라데쉬주(UP주) 일부와 하리아나 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대비 2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3개 주를 합쳐서 20%이므로, 마하라슈트라주 한 곳의 비중이 얼마나 큰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주들의 경우 타밀나두주, 카르나타카주, 구자라트주들이 각각 5~7%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하라슈트라에 외국인의 투자가 집중되는 이유는 앞서 경제 및 산업부분에서 언급한 대로 인도의 금융 중심지가 뭄바이에 있으며, 최대의 물류 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서부 해안가에 위치해서 중동,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으며, 또한 인도 중앙에 위치하여 내륙으로 가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각종 산업이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표 2〉 지역별 FDI 유입 현황 (인도 중앙은행 해당 지점별 유입 현황) (단위: 백만 U\$)

인도중앙은행 지점	관할 주(state)	누적유입액 ('00.4-'17.3)	전체대비 비중(%)
뭄바이	Maharashtra, Dadra & Nagar Haveli 연방직할지, Daman & Diu 연방직할지	102,283	31
델리	Delhi, UP주 일부, Haryana	68,037	20
첸나이	Tamil Nadu, Pondicherry	23,760	7
방갈로르	Karnataka	22,374	7

인도중앙은행 지점	관할 주(state)	누적유입액 ('00.4-'17.3)	전체대비 비중(%)
아메다바드	Gujarat	16,652	5
하이데라바드	Andhra Pradesh	13,766	4
콜카타	West Bengal, Sikkim, Andaman & Nicobar제도	3,985	1
코치	Kerala, Lakshadweep	1,755	1
인도 전체		332,112	100

자료: FDI Fact Sheet January 2017 to March 2017,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에 등록된 4천개의 외국기업 가운데 1,047개가 마하라슈트라주에 등록하였으며, 전체 외국기업의 약 25%가 인도 진출 거점으로 마하라슈트라주를 선택하였다. 대표적인 기업들로서는 먼저 철강업체의 경우 포스코가 뭍네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용 냉연, 도금강판 및 전기강판 공장과 강재 가공센터를 설립하였고, 자동차 업체로는 GM, 메르세데스-벤츠, 피아트, 폭스바겐 등이 뭍네에 공장을 설립하였다. 가전업체의 경우 LG전자가 뭍네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으며 폭스콘은 최근 50억달러를 투자해 마하라슈트라주에 제조거점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제약업체인 GlaxoSmithKline은 나시크에 진출하였고, Samsonite, Siemens 등도 나시크에 제조 거점을 두고 있다.

1-4. 마하라슈트라주 한국기업 진출 현황

외국인 직접투자는 마하라슈트라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은 첸나이 지역이며, 그 다음으로 델리NCR(수도권) 지역이고, 마하라슈트라주는 3번째 정도에 해당된다. KOTRA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첸나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 업체 수는 대략 172개로 집계되었으며, 다음으로 델리NCR지역은 164개, 마하라슈트라에는 82개의 업체가 진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기업들의 인도 직접투자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이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업체들이 주위에 포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하라슈트라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약 50%는 제조업체이며, 그 외 건설, 물류, 유통, 서비스 등 마하라슈트라의 우수한 금융/물류망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주로 진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업종의 경우 LG전자, 디지콘 전자 등이 진출하였고, 상사의 경우 삼성

물산, 대우인터네셔널, 자동차의 경우 동신모텍, 동원테크 등 부품업체가 철강의 경우 포스코가 마하라슈트라주에 진출하였다.

〈표 3〉 마하라슈트라주의 한국기업 분야별 진출 기업수

구분	제조	건설	물류	유통	서비스	금융	자원개발	기타	계
업체수	39	6	10	12	9	2	2	2	82

자료: KOTRA 뭍바이 무역관

〈표 4〉 마하라슈트라주 분야별 주요 진출 기업 현황

분야	기업명
전자	LG전자, 하나프로테크, 동일알루미늄, 디지콘전자, 셀텍, 스타리온, 나인코, 오성전자, 에버전자 등
상사	삼성물산, SKC, OCI상사, 한화무역, 대우인터네셔널 등
항공및수송	고려해운, 대한항공, 한진해운 등
건설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자동차	동신모텍, 동원테크, 디비아이, 성우하이텍, 에스엔티대우 등
기타 제조	포스코, LG화학, YG-1, 글로벌몰드 등
유통	StarCJ 등
금융	신한은행, 미래에셋 등

자료: KOTRA 뭍바이 무역관

1-5. 마하라슈트라주의 강점 종합

마하라슈트라주는 인도의 대표적인 상업과 산업 중심지이다. 비록 일부 신흥지역들이 새로운 사업을 무기로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마하라슈트라주는 인도 최대의 경제규모와 물류망과 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지금도 인도의 경제발전을 리드하고 있다. 2016년 싱가포르의 리관유 공공정책연구소(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의 아시아 경쟁력 조사국(Asian Competitiveness Institute)이 발표한 2016년 인도 주(state)별 Ease of Doing Business지수에서 마하라슈트라주가 인도 내 다른 주들을 제치고 가장 사업하기 좋은 주로 선정되었다. 본 조사는 Worldbank가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Ease of Doing Business 지표들을 일부 수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금번 조사에서는 마하라슈트라, 텔리, 타밀나두가 상위권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Ease of Doing Business 지표 속에는 각종 인허가, 세무 이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가능한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대체로 인도 서부권 주(state)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마인드가 동부권역에 비해 개방되어 있고, 유연한 접근방법을 쓰고 있어, 고질적인 인도의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기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자원, 물류, 인구와 같은 표면적 강점 보다 행정 시스템, 기업 친화적 문화와 같은 소프트 측면에서의 강점이 더 중요시 될 수 있다. 마하라슈트라주의 경우에는 뒤에서 소개할 구자라트주와 같이 소프트 측면에서 강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자라트주가 갖지 못한 금융 중심지,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어 더욱 경쟁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 구자라트주 (Gujarat)

2-1. 구자라트주 개요

구자라트주는 남쪽에서 마하라슈트라주와 경계를 인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마드야 프라데쉬주와 북쪽으로 라자스탄주와 북서쪽으로는 파키스탄과 경계를 잇고 있다. 면적은 19만6천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2배 정도이며, 인구는 약 6천만명이다. 주 수도는 간디나 가르(Gandhinagar)이고, 인구의 대부분은 구자라띠라는 현지어를 사용하고 있다. 구자라트는 아라비아해로 돌출된 지리적 특성상 과거부터 무역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로 인해 상업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구자라트 상인들은 무역과 상업외에 금융업에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환전, 대부업에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구자라트주의 경제규모는 2014-15년 기준으로 9조 루피로 마하라슈트라주의 1/2 정도이다. 인구 규모도 마하라슈트라의 약 1/2에 해당되므로 인당 지역총생산은 비슷한 수준이다.

구자라트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아메드바드(Ahmedabad)이다. 인구 635만명이며 간디나 가르가 주(state)수도가 되기 전까지 주 수도였다. 2010년 포브스(Forbes)誌에서 선정한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도시 가운데 3위에 뽑혔을 정도로 성장성이 높으며, 구자라트주의 산업, 문화 중심지이다. 19세기부터 섬유, 의복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한때는 동양의 맨체스터라고 불리기까지 하였다. 현재는 섬유 산업 외에 보석 및 귀금속 가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인도산 보석과 귀금속의 주요 수출기지이기도 하다. 또한 인근 산업단지에 자동차 기업을 유치하여 자동차 산업 단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로는 타타 자동차인데, 타타는 2008년 소형차 Nano의 생산기지를 웨스트벵갈에서 구자라트로 옮기기

로 결정하였으며, 아메다바드 인근의 사난드(Sanand)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였다. 다음으로 큰 도시는 인구 447만명의 수라트(Surat)이다. 수라트는 구자라트 최대의 항구도시이며, 인도 최대의 다이아몬드 가공단지이기도 하다. 수라트에서 가공되는 다이아몬드 원석은 전 세계의 90%에 이른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하여 국내 내수나 외국에 수출하면 이를 현지 업체가 다시 재가공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간디나가르는 구자라트주의 주수도이면서 계획도시이다. 인구 30만명의 비교적 소도시이지만 행정 도시로서 잘 구획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2. 구자라트주 경제 및 산업

상업과 섬유, 의복업이 발달한 구자라트주이지만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주 총리로 선출되고 나서 다시금 경제성장에 가속도가 붙었다. 모디 주 총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주 총리로 재직하였는데, 전기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보강하여 구자라트주내 모든 농촌지역에까지 전기를 보급하였고, 친기업 정책을 펼쳐 다수의 기업을 구자라트주로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타타자동차 공장 유치이다. 타타 자동차는 당초 소형 자동차 Nano의 생산기지로 타타 그룹의 모태인 타타 스틸 제철소가 있던 잠셰드푸르(Jamshedpur)에서 멀지 않은 웨스트벵갈주를 선택했으나, 토지수용을 거부하는 현지 농민과 야당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 결국은 구자라트주로 생산 거점을 옮기게 되었다. 당시 모디 총리는 저렴한 부지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타타 그룹에 제시하였고, 타타 그룹은 당시로서는 자동차 생산기지로 생소한 곳인 구자라트주에 공장을 설립하는 모험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뒤이어 타타 자동차의 뒤를 이어 포드와 스즈키도 구자라트로 진출하였고, 혼다 자동차 또한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성장 중시 정책은 구자라트주의 성장 속도를 가속화시켰는데, <표 5>에서도 보듯이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구자라트주의 경제성장률은 대부분의 기간 인도 전체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구자라트주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회계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구자라트	14.95	8.39	11.0	6.78	11.25	10.01	7.66	7.96
인도전체	9.48	9.57	9.32	6.72	8.59	8.91	6.69	4.47

자료: Planning Commission India

구자라트주의 산업은 앞서 언급한 섬유, 의복, 보석 및 귀금속 가공업 외에도 중등과 인접한 지역에 항구를 두고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정유 및 화학공업도 크게 발전하였다. 릴라이언스(Reliance)그룹과 에싸르(Essar)그룹을 중심으로 구자라트주에서 정유업을 영위하고 있다. 에싸르 그룹은 구자라트주에서 1천만톤급의 제철소를 운영하는 등 철강업 또한 구자라트의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이다. 비록 최근에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은행권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지만 한때 에사르스틸(Essar Steel)은 인도 서부권 주력 철강사로 자리매김했던 적도 있다. 최근 자동차 업체들이 연이어 구자라트주에 설비를 신설하고 있어, 자동차 강판 공급을 위한 가공센터 설치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상해보강과 포스코 또한 자동차 강판 가공센터를 설립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3. 구자라트주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표 2〉에서도 나타내듯이 구자라트주에 투자된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 금액 합계는 총 166억 달러이며, 이는 전체 투자금액의 약 5% 정도이다. 전통적인 외국인투자 집중 지역인 마하라슈트라주, 텔리/수도권 지역과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첸나이, IT투자 붐을 이끈 방갈로르가 위치한 카르나타카에 이어 구자라트주는 5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외국인이 주목할 만한 뚜렷한 입지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자라트가 외국인 관심 지역이 된 배경에는 모디 총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과 자세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일례로 필자가 인도에서 주재 근무한 2008년 당시 텔리에 소재한 각 주 정부의 투자유치 사무국들을 방문해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관심을 표명한 곳이 구자라트주였으며, 장거리 통화를 마다하지 않고 직접 고위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던 것이 인상에 깊게 남았다. 인도 동부지역과 같이 풍부한 지하자원이나 비옥한 농토는 없지만 과거부터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 부를 쌓은 경험과 노력이 구자라트 성장에 큰 기여를 했음이 분명하다.

2-4. 구자라트주 한국기업 진출 현황

구자라트주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의 진출은 다소 더딘 편이다. 과거 구자라트의 주력 산업이 섬유, 정유, 무역, 귀금속 가공업, 철강, 낙농업이고 자동차 산업은 최근에야 발전하고 있어, 제조업 위주인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다. 한때 기

아자동차가 인도 공장을 구자라트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의 경우 철강업체로서는 포스코가 강재 가공센터를 구자라트주에 설립하였으며, 특수 화학업체인 송원 산업이 인도 업체를 인수하면서 구자라트주의 제조설비를 확보하고 있다.

2-5. 구자라트주의 강점 종합

구자라트주는 마하라슈트라와 같은 금융, 시장규모와 같은 외형적 강점 요인은 없다. 또한 인도 동부에 위치한 주들과 같이 풍부한 지하자원도 없다. 상대적으로 척박한 땅에 내수 규모도 크지 않지만 불리한 점을 오히려 기회로 되살리는 높은 기업가 정신이 강점이다. 예를 들면, 비옥한 토지의 경우 농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산업화를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데 반해, 척박한 땅일 경우 부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인도와 같이 땅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 오히려 강점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구자라트주는 중동국가들과 가깝고 해양 지역과 인도 북부권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기가 용이하다. 수라트에서 보석 및 귀금속 가공업이 발달한 것이 그 이유이다. 보석과 귀금속의 주된 수요처는 중동지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경제성장에 애착을 갖고 의욕적으로 밀어부치던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를 떠나 연방 수상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이 다소 구자라트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인도경제의 핵심지역 인도북구: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지화 필요

이순철*

1. 서론

본고는 인도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우타르프라데쉬, 라자스탄, 마디아프라데쉬, 하리아나, 델리, 편잡, 우타르칸드, 히마찰프라데쉬, 잠무카슈미르 주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협력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경제, 자원, 에너지, 산업 측면에서 동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을 활용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보는 것이 본고의 첫 번째 목적이다. 그 다음 목적은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2. 경제 및 산업환경

인도 북부는 인도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1>은 1961년과 2011년 기간 동안의 인구 변화를 주별로 비교하고 있다. 인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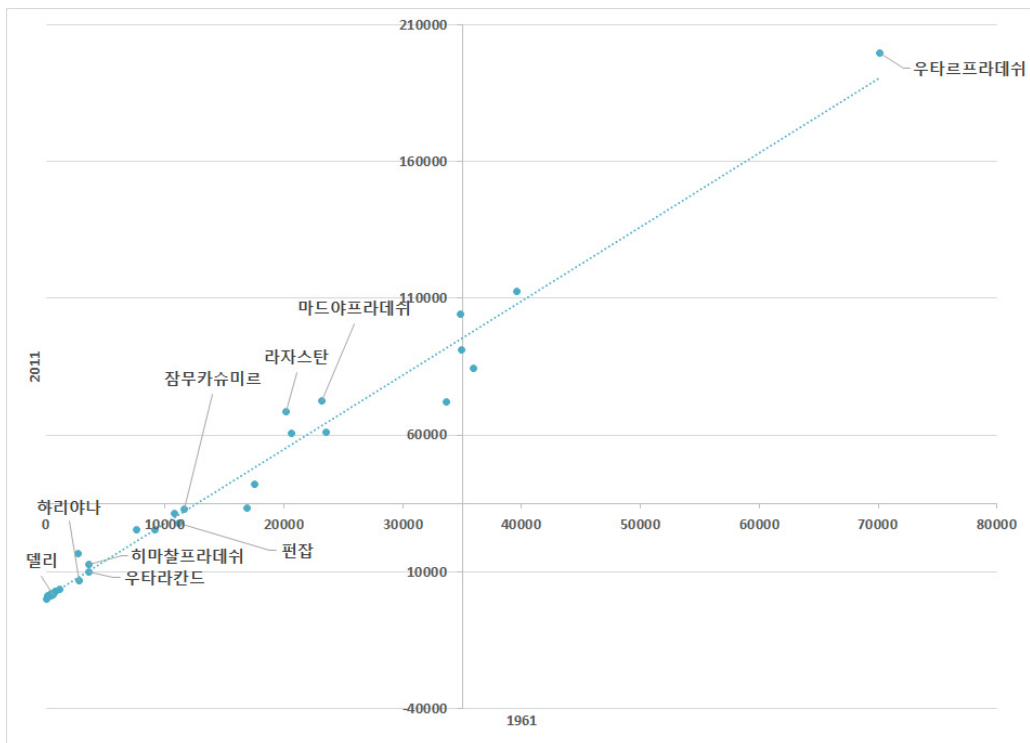
* 現 부산외대 인도학부 교수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서남아팀 인도담당 연구위원 및 팀장

인구는 1961년에는 약 4억 3,923만명에서 2011년에는 12억 1,085만명으로 무려 7억 7,162만명이나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 대비 비중으로 보면, 인도 북부는 같은 기간 32.9%에서 36.4%로 다른 주에 비해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 것이다. 북부 주들 중에서 특히 델리와 하리아나를 비롯한 잠무카슈미르, 마드야프라데쉬, 라자스탄, 우타르프라데쉬의 인구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북부 주들, 특히 일부 주의 인구 증가 비중이 높아진 것은 경제성장과 연관이 있다.

〈그림 1〉 인도의 주별 및 북부 주의 인구 변화현황

(단위: 천명)



자료: 인도중앙은행 데이터베이스(2017/10/15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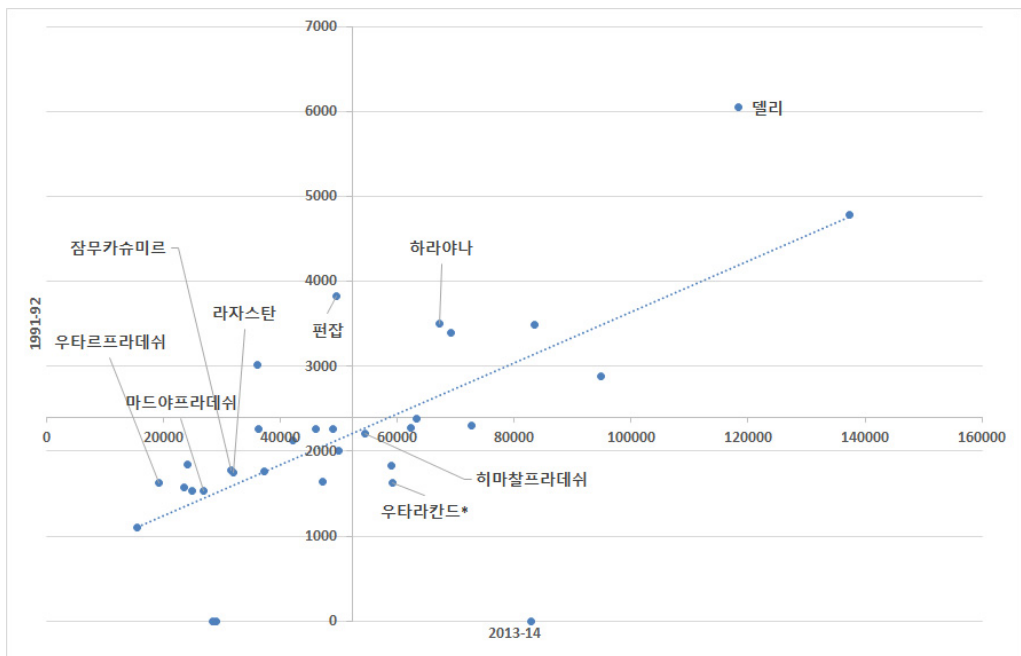
〈그림 2〉는 1991-92년과 2013-14년의 주별 1인당 GDP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에 따르면, 델리와 하리아나의 1인당 GDP가 다른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즉 두 주는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

게 인도의 북부 주들 중에서 델리와 하리아나와 같은 주들은 인도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델리와 하리아나 주 외에도 최근에 우타라칸드의 경우는 전체 평균보다 더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어, 앞으로 인도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편잡, 잠무카슈미르, 우타르프라데쉬와 마드야프라데쉬의 1인당 소득은 다른 주들에 비해서도 낮다. 즉 인도북부 주들은 인도 경제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이 느린 주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그림 2〉 인도의 주별 1인당 GDP 변화 현황

(단위: 루피)



주: * 우타라칸드의 1991-92년 자료부재로 1992-93년도 자료 사용. 1인당 GDP는 순GDP를 사용함.
자료: 인도중앙은행 데이터베이스(2017/10/15검색)

〈표1〉은 2000-01년과 2013-14년의 인도 북부 주들의 RGDP 비중과 전체 순위를 보여 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인도 북부 주들 중에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주와 상대적으로 느리게 성장하는 주들이 있는 데, 이러한 주들 간에 경제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인도의 북부 주는 전체 GDP의 32.5%에서 30.3%로 그 비중이 하락하였다. 상승하는 주들은 델리, 하리아나, 우타라칸드 등이다.

이에 반해, 그 외의 주들은 대부분 전체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 우타르프라데쉬와 편잡 주의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다. 특히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우타르프라데쉬의 경우 경제성장이 느려지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표 1〉 인도 북부 주의 RGDP 비중과 순위

구분	2000-01		2013-14	
	비중(%)	순위	비중(%)	순위
우타르프라데쉬	10.3	2	8.2	3
라자스탄	4.7	8	4.6	7
마디아프라데쉬	4.3	9	4.1	9
편잡	4.0	11	3.1	14
델리	3.3	13	3.9	11
하리아나	3.2	14	3.5	13
잠무카슈미르	0.9	19	0.8	22
히마찰프라데시	0.9	20	0.8	21
우타라칸드	0.8	21	1.3	20
합계	32.5		30.3	

자료: 인도중앙은행 데이터베이스(2017/10/15검색)

〈그림 3〉은 인도 북부 주의 산업구조를 2000-01과 2013-04년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인도의 북부 주들은 농업과 공업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서비스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도 전체 평균에 비해서, 델리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비중이 모두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델리는 행정 수도라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서비스 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를 자세히 보면, 북부 주의 비중은 2000-10년 22.2%에서 2013-14년 12.6%로 줄어들었다. 델리의 비중도 줄어들었지만, 특히 우타라칸드의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다. 나머지 주들은 인도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마디아프라데시, 편잡, 우타르프라데쉬, 라자스탄, 잠무카슈미르 등의 농업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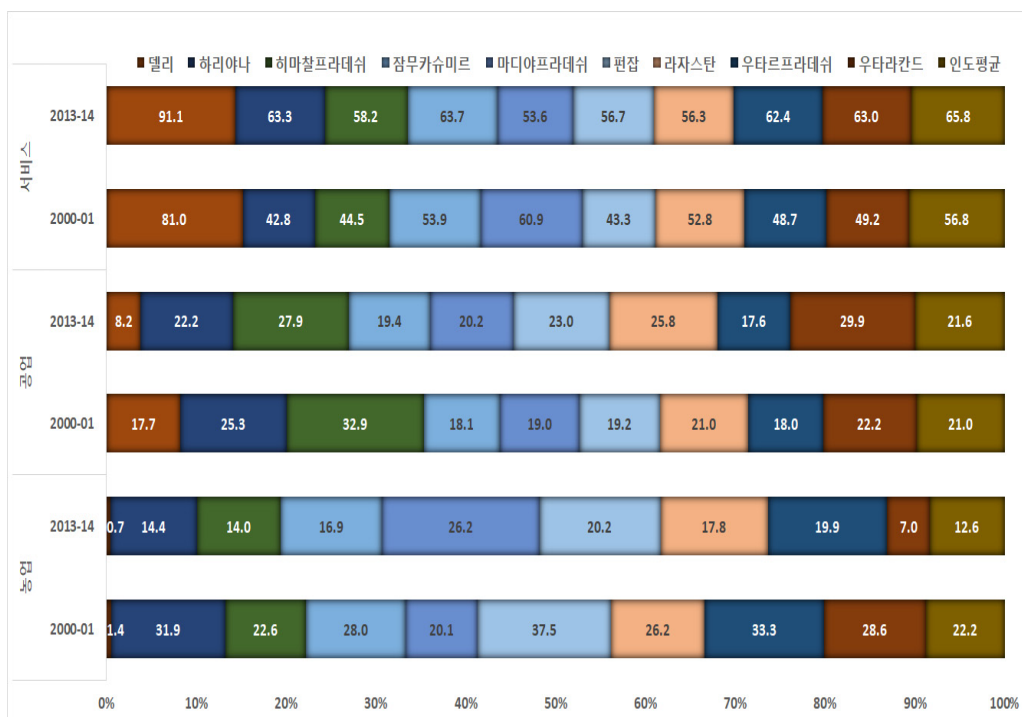
다음으로 공업을 보면, 같은 기간 평균 21.5%에서 겨우 0.1%가 오른 21.6%를 기록하였다. 비록 2000년대 초반에는 인도 전체에 비해 매우 약간 높은 수준의 공업 비중을 보였으

나, 지금은 인도 평균 수준의 공업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텔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텔리의 비중이 17.7%에서 8.2%로 크게 줄었다. 또한 히마찰프라데쉬도 같은 기간 32.9%에서 27.9%로, 하리아나 25.3%에서 22.2%로, 그리고 우타르프라데쉬는 18.0%에서 17.6%로 축소되어, 공업의 비중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잠무카슈미르, 마디아프라데쉬, 편잡, 라자스탄, 우타라칸드 주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즉 우타르프라데쉬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텔리와 하리아나 주에 근접해 있는 주들의 공업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의해 텔리와 하리아나 주변지역의 제조업체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비스 부문을 보면, 북부 서비스 산업의 평균 비중은 인도 전체 평균에 65.8%에 비해서는 낮지만, 53%에서 63.2%로 크게 증가하였다. 비록 북부의 주들은 다른 지역의 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정도가 높지만 농업의 비중을 축소시키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림 3〉 인도 북부 주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인도중앙은행 데이터베이스(2017/10/15검색)

인도 북부 주들은 두 가지 유형의 서로 다른 지형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구조도 다르다. 최북단의 주들은 대부분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 및 산림의 보고 지역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북중부는 평지에 위치해 있어 농업과 공업, 그리고 서비스업의 주요 생산지역이다.

먼저 상대적으로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잠무카슈미르, 히마찰프라데쉬, 편잡, 우타라칸드를 살펴보자. 잠무카슈미르 주는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있어 산악지대이며, 주로 농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 고냉지 농업을 통하여 목재를 많이 생산하며, 사과, 보리, 체리, 옥수수, 오렌지, 쌀 등을 수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화훼농업이 발달해 있어, 매년 5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도다(Doda)지역은 소비자 제품을 생산하고는 있지만 그 규모가 크지는 않다.

편잡은 상대적으로 내륙 수로가 발달하고 농업에 적합한 농지를 갖고 있다. 이에 밀, 사탕수수, 과일, 야채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인도 전체 면의 10%, 밀의 19.5%, 쌀의 11%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편잡은 세계의 면과 밀의 2%, 쌀의 1%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잡은 비료도 인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주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업은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하여 대표적인 공업은 없다.

산악지대에 위치한 히마찰프라데쉬는 산림보호지역이 많고, 90%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채소, 감자, 생강 등이며, 면 및 실크를 생산한다. 우타라칸드도 86%가 산악지대이고, 65%가 수림지역이다. 쌀, 밀, 콩, 시리얼 등과 다양한 과일들을 생산하고 있다. 그 외 IT, 바이오, 의약, 자동차 산업이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다.

다음으로는 상대적으로 인도 중부에 위치해 있는 하리아나, 델리, 우타르프라데쉬, 라자스탄, 마드야프라데쉬를 보면, 인도 최대의 경제중심지이면서도 상업의 중심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하리아나는 최근에 구르가온이 발전하면서 인도 최대의 경제중심지로 성장하였다. 구르가온을 중심으로 석유회사, 금융회사, 부동산회사 등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수소비재 등 소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밀, 사탕수수, 콩, 보리, 옥수수 등이 생산되고 있다. 델리는 인도의 가장 큰 상업지구로 대부분 3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산업으로는 ICT, 호텔, 은행, 미디어 및 관광, 건설, 전력 등이 있으며, 주요 소비시장이기도 하다.

우타르프라데쉬는 제조업 중심지로 널리 알려진 노이다와 누크노우(lucknow) 공업지역이 위치해 있어, 기관차 및 엔지니어링, 전자 및 전기장비 등 특정 지역 중심으로 제조업과 공업

이 발달해 있다. 특히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 모바일 등록자 수도 가장 많은 주이다. 설탕과 사탕수수는 전국의 70%를 생산할 정도로 사탕수수 재배 및 설탕 가공업이 발달해 있다.

라자스탄은 농업 종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인도의 최대 밀과 보리, 면과 담배 생산 지이기도 하다. 특히 섬유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도의 두 번째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지이다.

마디아프라데쉬는 산림이 주 면적의 30.7%, 인도 전체 면적의 12.3%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이 풍성하며, 농업 중심 지역이다. 이에 따라, 주로 밀, 콩, 사탕수수, 옥수수, 면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5개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가 있어, IT 및 소비자 제품을 제조 및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 총포 생산지로도 유명하다.

주	주요 산업	주요 농산물
잠무카슈미르	농업, 목재, 소비자 제품	사과, 보리, 체리, 옥수수, 채소, 오렌지, 복숭아, 배 등 수출. 화훼
편잡	농산물, 가공, 직물, 농기계, 수공구 등	밀, 쌀, 면, 사탕수수, 옥수수, 보리, 과일 등
히마찰프라데쉬	관광업, 섬유 및 실크, 의약, 식품가공, 경공업	면, 채소, 실크
우타라칸드	IT, 바이오, 의약, 자동차	밀, 쌀, 콩, 시리얼 등
하리아나	제조업(자동차 및 부품, 기계 등), BPO, 농업, 도소매,	밀, 사탕수수, 면, 콩, 보리 등
델리	서비스, ICT, 호텔, 은행, 미디어 및 관광	-
우타르프라데쉬	기관차 및 엔지니어링 제품, 전자, 전기장비, 케이블, 철강, 가죽, 섬유, 보석, 자동차, IT	설탕 또는 사탕수수(70%생산)
라자스탄	직물, 나이론, 탄화칼슘, 농업, 목축업, 수공업품	밀, 보리, 콩, 설탕, 지방종자, 면 최대 생산지, 담배 및 아편
마디아프라데쉬	5개의 SEZ(IT, 소비자 제품), 자동차, 총포,	꿀, 밀, 콩, 사탕수수, 쌀, 옥수수, 면

자료: 각 주 정부 등 각종 자료에서 저자 취합 작성

3. 자원 및 인프라 환경

최단 북부 지역은 일부 천연가스, 석회석, 보이사이트, 산림 등으로 유명하다. 산림이 풍부하고, 수력발전이 용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관광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북부 주 중에서 중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주들도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주는 없으나, 일부 주에서만 석유 및 석탄 등이 풍부하다. 라자스탄은 석유 및 석회암 생산지로 유명하다. 매일 30만 배럴의 석유 생산으로 250만 달러의 석유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라자스탄의 석유생산은 인도 전체 석유 생산의 약 15%를 감당하고 있다. 마디아프라데쉬는 상대적으로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동부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석탄 및 관련 자원이 매우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우타르프라데쉬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석유 등 에너지 생산이 많다.

〈표 3〉 인도 북부 주의 천연자원 및 에너지 현황

주	주요 산업 및 생산 수준	주요 자원 및 에너지
잠무카슈미르	일부 천연가스, 화석연료 미미	석회암, 보이사이트, 석탄, 구리, 아연 등
편잡	부족	
히마찰프라데쉬	수력, 산림	소금, 석회암, 중정석, 점토,
우타라칸드	일부 천연자원, 관광	석탄, 유리, 대리석, 천연가스, 보그사이트, 구리, 금 등
하리아나	석유산업, 전력	석회암, 백운석, 대리석 등
델리	-	-
우타르프라데쉬	에너지의 수도, 석회암, 돌로마이트(dolomite), 유리용 모래, 대리석, 보크사이트, 우라늄	석유, 석고, 은, 석연, 구리, 아연, 대리석 등
라자스탄	석유산업, 아연, 대리석 등 풍부	석유, 석회암, 아연, 대리석 등
마디아프라데쉬	석탄관련 자원 풍부, 산림	철강, 다이아몬드, 구리, 대리석, 석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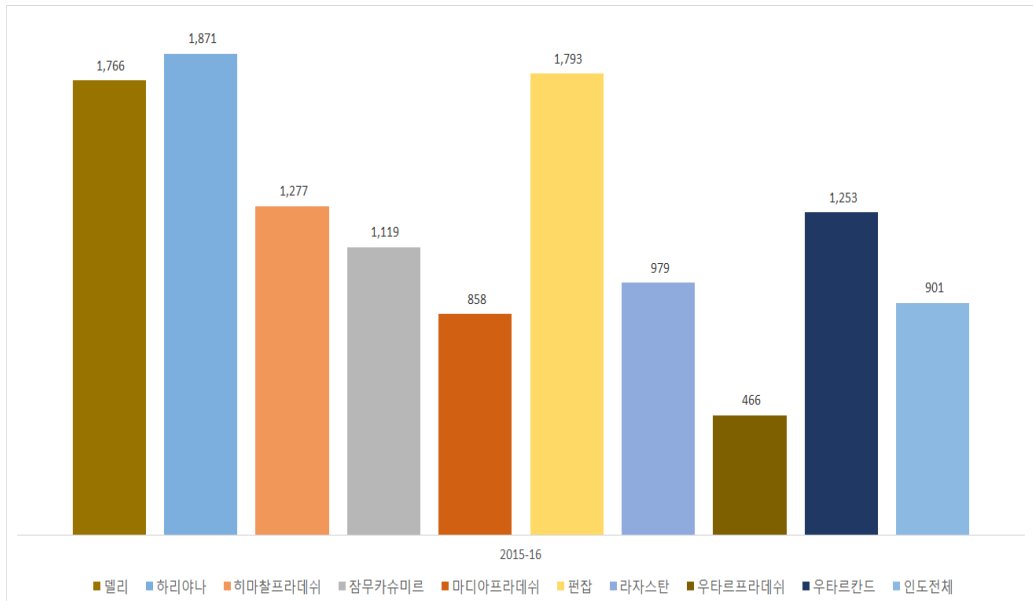
자료: 각 주 정부 등 각종 자료에서 저자 취합 작성

인도 북부 주의 인프라 사정은 인도 전체 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그림 4〉는 인도 북부 주들의 1인당 전력 가용성(availability)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 전체 평균은

900 시간당 Kw인 것에 비해, 마디아프라데쉬와 우타르프라데쉬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을 넘기고 있다. 특히 델리, 하리아나, 편잡 주의 전력 가용성은 매우 높다.

〈그림 4〉 인도 북부 주의 1인당 전력 가용성

(단위: Kw/시간)



자료: 인도중앙은행 데이터베이스(2017/10/15검색)

〈표 4〉에서는 인도 북부지역의 도로 및 철도 연장 현황을 인구 및 면적과 같이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인도 북부지역은 고속도로는 인도 전체의 34.8%, 철도는 37.6%, 도로연장은 29.5%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인구 비중(36.4%)과 면적 비중(40.1%)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특히 히마찰프라데쉬, 마디아프라데쉬, 우타르프라데쉬의 경우는 인구 나 면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델리, 하리아나, 편잡, 우타르칸드 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즉 최북단 주들은 산악이 많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중부지역인 라자스탄, 우타르프라데쉬, 마디아프라데쉬는 최북단 주들보다는 좋지만 평균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하리아나, 델리, 편잡, 우타라칸드 등의 인프라 수준은 인도 전체에 비해서도 높다.

〈표 5〉 인도의 도로 및 철도 연장 현황

북부 주	고속도로 (km)	철도연장 (km)	도로연장 (km)	인구 (천명)*	면적 (km ²)
델리	80 (0.1)	183 (0.3)	32,067 (0.7)	16,788 (1.4)	1,490 (0.0)
하리아나	2,307 (2.4)	1,630 (2.5)	55,593 (1.2)	25,351 (2.1)	44,212 (1.3)
히마찰프라데쉬	2,466 (2.5)	296 (0.4)	55,593 (1.2)	6,865 (0.6)	55,673 (1.7)
잠무카슈미르	2,593 (2.6)	298 (0.5)	39,096 (0.9)	12,541 (1.0)	222,236 (6.8)
마디아프라데쉬	5,184 (5.3)	4,979 (7.5)	288,931 (6.3)	72,627 (6.0)	308,245 (9.4)
편잡	2,239 (2.3)	2,269 (3.4)	105,368 (2.3)	27,743 (2.3)	50,362 (1.5)
라자스탄	7,886 (8.0)	5,898 (8.9)	415,383 (9.1)	68,548 (5.7)	342,239 (10.4)
우타르프라데쉬	8,483 (8.7)	345 (0.5)	62,945 (1.4)	199,812 (16.5)	240,928 (7.3)
우타라칸드	2,842 (2.9)	8,950 (13.6)	295,997 (6.5)	10,086 (0.8)	53,483 (1.6)
북부전체	34,080 (34.8)	24,848 (37.6)	1,350,973 (29.5)	440,361 (36.4)	1,318,868 (40.1)
인도전체	97,991 (100)	66,030 (100)	4,572,144 (100)	1,210,855 (100)	3,287,263 (100)

주: *인구는 2011년 기준이고, 나머지는 2015-16년 기준임. ()는 인도 전체 대비 비중임.
자료: 인도중앙은행 데이터베이스(2017/10/15검색)

4. 생산환경

인도 북부 주들의 생산환경을 보면(〈표 5〉), 인도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은 아니며, 주별로 격차도 심하다. 생산에서 가장 필요한 공장수, 노동자수, 총고정자본형성의 2014-15년도 현황을 보면, 각각 25.8%, 27.3%, 19.8%로, 노동자수만 전체 평균보다 높고, 나머지는 평균 수준이거나 그 이하이다. 특히 총고정자본형성은 전체보다 매우 낮다. 즉 노동자수 대비 낮은 자본 비중은 인도 북부가 자본집약적 산업보다는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업지역인 델리의 경우는 공장수 대비 노동자수나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이 낮고, 하리아나는 공장수 대비 노동자수나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이 높다. 즉 하리아나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요소가 풍부하다. 마디아프라데쉬는 자본이 풍부하며, 편잡은 노동이 풍부하다. 우타르프라데쉬는 상대적으로 생산시설과 생산요소가 풍부한 주로 나타났다. 즉 북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부에 있는 하리아나, 편잡, 라자스탄, 우타르프라데쉬 주들이 생산환경이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표 6〉 인도 북부 주의 생산환경

지역	공장수 (개)	노동자수 (명)	총고정자본형성 (백만루피)
델리	3,868 (1.7)	80,766 (0.8)	9,651 (0.3)
하리아나	8,243 (3.6)	580,933 (5.4)	139,294 (4.3)
히마찰프라데쉬	2,784 (1.2)	147,796 (1.4)	19,543 (0.6)
잠무카슈미르	965 (0.4)	52,037 (0.5)	5,545 (0.2)
마디아프라데쉬	4,240 (1.8)	256,924 (2.4)	138,558 (4.3)
편잡	12,413 (5.4)	467,951 (4.4)	47,703 (1.5)
라자스탄	8,986 (3.9)	375,780 (3.5)	105,055 (3.2)
우타르프라데쉬	14,867 (6.5)	673,431 (6.3)	146,957 (4.5)
우타르칸드	2,987 (1.3)	295,217 (2.7)	28,651 (0.9)
북부전체	59,353 (25.8)	2,930,835 (27.3)	640,958 (19.8)
인도전체	230,435 (100)	10,755,288 (100)	3,235,959 (100)

자료: 인도중앙은행 데이터베이스(2017/10/15검색)

〈표 6〉은 인도의 지역별로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서부이며, 그 다음으로 북부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델리와 하리아나이다. 델리와 하리아나에 투자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21%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북부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5%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즉 인도 북부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선호하는 지역이지만, 그 지역이 델리와 하리아나에 한정하고 있고, 다른 주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7〉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현황

RBI지점	지역	FDI(백만달러)	비중(%)
뭄바이	서부	561,471	30
델리	북부(하리아나포함)	386,923	21
첸나이	남부	139,799	7
방갈로르	남부	137,774	7
아메다바드	서부	93,383	5
하이드라바드	남부	76,712	4
콜카타	동부	21,461	1
코치	남부	10,061	1
자이푸르	북부	8,666	0.5
보팔	북중부	7,247	0.4
찬디아가르	북부	6,591	0.4
판나지	남부	4,774	0.3
칸푸르	북중부	3,303	0.2
부바네쉬바르	동부	2,080	0.1
파타나	동부	670	0.03
구와하티	동북부	462	0.03

주: 인도의 FDI 유입현황은 인도중앙은행인 RBI의 지점별로 취합하고 있음.

자료: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Government of India의 FDI 통계자료

4. 맺음말

우리는 인도 북부 지역을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인도 경제성장에서 전략적 가치를 평가해 보았다. 인도 북부지역은 한국의 대인도 협력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지역이다. 이에 인도 북부 지역에 대한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이 요구된다. 하지만, 인도 북부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서 이해하고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렵다. 인도의 최단 북부 지역은 경제규모, 인구, 생산환경, 인프라 등에서 열악하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중부지역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중북부지역은 경제규모, 산업구조, 생산환경, 인프라 등에서 인도 최고의 발전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이러한 차이는 최북단 주들과 중북부지역의 주들 간의 경제적 격차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격차를 이용하여 인도 북부 지역과 경제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북단 지역은 농업 및 산림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발달해 있다고 한다면 중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 산업들이 집중해 있다. 특히 델리와 하리아나, 그리고 그 주를 인접해 있는 주들은 경제 및 상업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 비해 경제성장도 빠른 편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인도 뭍바이 지역 다음으로 델리와 하리아나 등 북동부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종합해 보면, 인도 북부 지역은 한국과의 협력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최북단은 천연자원과 농업 협력이 가능하다. 최북단 지역은 천연자원, 산림, 농업의 보고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농업 가공, 바이오, 의약품 등 협력이 가능하다. 또한 수력발전, 관광 사업도 같이 구상할 수 있다.

둘째, 중북부지역은 경제 및 상업 부문에서의 협력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 중북부지역은 델리와 하리아나, 우타르프라데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과 무역 면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IT, 전자, 자동차 등에서 협력이 가능한 것은 물론 소비시장 측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도 북부 지역이 경제성장이 빠르고, 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소비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인도 진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파키스탄의 경제 현안 분석과 동반자적 관계

이정미, 이 웅, 송영철*

1. 서론

파키스탄은 약 2억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세 미만의 젊은층 인구가 1억 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풍부한 노동력과 미래 시장으로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파키스탄은 이러한 잠재력에 힘입어 성장 잠재력과 투자 전망이 좋은 나라로 평가되는 11개 신흥 경제국인 한국, 멕시코, 베트남,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등과 함께 NEXT11으로 주목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세계금융위기, 홍수, 전력난 심화,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 불안 등으로 2008/09년 0.36%의 저조한 성장을 한 이후 주변지역의 성장률에 비해 낮은 3~4%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을 기점으로 성장이 확대되면서 2015/16년, 2016/17 GDP 성장률이 예년대비 높은 5.5%, 5.7%를 기록했다.

* 이정미

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서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 석사

* 이 웅

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 송영철

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서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한편 파키스탄은 인도를 제외한 여타 남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와의 관계는 미진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인구 규모 및 전략적 중요성 등을 미뤄볼 때, 우리나라는 파키스탄과의 협력관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파키스탄 경제 현황

2001년 9월 미국 테러 사태 이후 무사라프 정권의 대미 협조정책으로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경제지원이 가시화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던 파키스탄 경제는 세계금융위기, 홍수, 전력난 심화,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 불안 등으로 2008/09년 0.36%의 저조한 성장을 하였다. 그 이후 주변지역의 성장률에 비해 낮은 3~4%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던 파키스탄은 2015/16년 시장가격기준의 GDP성장률이 5.5%를 기록하며 예년 대비 높은 성장을 하였다. 또한 2017년 5월 25일 발표된 economic survey 2016/17 자료에 의하면 2016/17년 성장률이 5.7%로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파키스탄의 부가가치(GVA)기준 경제성장률이 5.3%로 2006/07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거시경제안정과 기준금리 인하 및 CPEC로 인한 투자확대는 최근 파키스탄의 경제성장에 기인하고 있다. 거시경제가 안정된 가운데 CPEC 추진으로 국내외 투자가 확대, 체감경기가 호전된 결과 민간소비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World Bank, IMF 등 주요 기관들은 2017/18년 파키스탄 성장률을 5.2%~5.5% 수준으로 전망하는 등 파키스탄은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IMF는 파키스탄 경제가 CPEC 투자, 에너지 수급 원활화, 구조개혁에 힘입어 중기적으로 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했다.

〈표 1〉 파키스탄의 부문별 성장률 추이

구성 요소 (GDP 대비 비중, %)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P)
GDP 전체(시장가격기준)	2.7	3.5	4.4	4.7	4.7	5.5	5.7
민간소비 (80)	4.6	5.0	2.1	5.6	2.9	6.9	8.6
정부지출 (12)	0.0	7.3	10.1	1.5	8.1	8.2	10.7
총고정자본형성 (15)	-7.7	2.4	2.6	2.5	15.8	6.7	8.3
수출 (9)	2.4	-15.0	13.6	-1.5	-6.3	-1.6	-0.2
수입 (17)	-0.1	-3.1	1.8	0.3	-1.6	11.7	24.0
GDP 전체(GVA기준)	3.6	3.8	3.7	4.1	4.1	4.5	5.3
농림수산업 (19)	2	3.6	2.7	2.5	2.1	0.3	3.5
광공업 (21)	4.5	2.6	0.8	4.5	5.2	5.8	5
제조업 (14)	2.5	2.1	4.8	5.7	3.9	3.7	5.3
서비스업 (60)	3.9	4.4	5.1	4.5	4.4	5.6	6

주: 2016-17년은 2017년 5월 25일 발표된 자료 economic survey 2016/17의 예측치임.

구성요소 GDP 대비 비중은 2016/17년 기준임. 파키스탄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임.

자료: CEIC

파키스탄의 거시경제를 보면, 2008/09년 17%에 달하던 물가상승률은 2015/16년 2.8% 수준으로 안정되었으며, 2011/12년 GDP 대비 8.8%까지 확대된 재정적자는 2015/16년 GDP 대비 4.6% 수준으로 감축되면서 점차 안정되었다. 거시경제 안정을 바탕으로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2011년 13.5%였던 기준금리를 2016년 5월 5.75%까지 인하하였으며, 무디스와 S&P와 같은 신용등급평가사들이 파키스탄의 국가신용등급을 상승(무디스는 파키스탄 국가 신용등급을 2015년 6월 투자부적격 등급인 Caa1에서 투자주의 등급인 B3로 상승, S&P는 2016년 10월 -B에서 B로 한 단계 상승)시켰다.

한편 2016/17년 11개월 간(7월~5월) 무역적자는 3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42% 증가했으며, IMF는 2013-16년 IMF 확장 차관(Extended Fund Facility, EFF) 프로그램으로 개선된 파키스탄의 거시경제 안정성이 정책실행과 개혁의 부진으로 다시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였다(IMF, 2017.6.16.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Pakistan). 이와 같이 내수확대로 인한 무역적자 심화와 2018년 총선으로 인한 재정적자확대 가능성, 유가 및 농산물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변동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 저해 요인이 파키스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표 2〉 파키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2011/12~2016/17)

구 분	단 위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GDP(명목)	십억 달러	224.4	231.2	244.4	270.6	278.9	304.0
1인당 GDP(구매력 기준)	달 러	4,448	4,619	4,820	4,990	5,162	5,446
CPI 상승율	%	7.9	9.2	4.3	3.2	3.7	4.1
수 출	백만 달러	24,792	25,115	24,777	22,707	21,709	21,829
수 입	백만 달러	-40,385	-41,214	-42,675	-39,815	-42,728	-49,667
경상수지/GDP	%	4.2	-0.8	-3.3	-5.3	-5.8	-10.7
재정수지/GDP	%	-6.8	-8.2	-5.5	-5.3	-4.6	-5.8
환율(연평균)		97.14	105.68	100.46	104.87	104.81	106.63

주: 파키스탄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임.
자료: EIU

3. CPEC 추진현황과 경제적 영향

1) CPEC 추진현황

파키스탄의 경제 및 대내외 정치 등 전반적인 분야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CPEC는 시진핑 지도부의 신 대외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이다. 일대일로는 동부 연해지역 위주의 기존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 육상, 해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통합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가 프로젝트로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파키스탄과의 협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파키스탄과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파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CPEC 개발 협력 계획을 구체화 하였다. 중국 신장자치구 카스에서 파키스탄 과다르항까지 연결되는 CPEC는 73,000km² 에 걸쳐 북부, 동부, 서부, 중앙 경로 등 총 4개 경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다르항 개발을 포함하여 철도 및 도로, 공항, 통신, 경제특구 개발, 에너지 및 해양협력 등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CPEC 경로



자료: 이정미, 신세린(2017.2)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과 과제, KIEP 기초자료 17-01

CPEC의 총 사업규모는 2015년 460억 달러로 계획되었으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중국이 카라치-페샤와르 구간 철도(ML-1) 개보수 사업 예산을 기존 35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면서 총 예산은 510억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CPEC 프로젝트는 크게 에너지, 교통인프라, 과다르항 개발, 광섬유망 설치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에너지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조기 시행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파키스탄의 산업 및 경제 활동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성적 전력난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자하는 파키스탄 정부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적 영향

CPEC로 인한 열악한 인프라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파키스탄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CPEC 사업 규모는 2015년 파키스탄 GDP의 17%, 1970년대부터 파키스탄으로 유입된 FDI 총액 이상으로 이 대규모 사업을 통해 파키스탄은 7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성장률이 2.5%p 증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Deloitte, How will CPEC boost Pakistan economy?). 특히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CEPC로 인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인프라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파키스탄 수자원전력부(Ministry of Water and Power)는 현재 진행 중인 전력 프로젝트에 의해 2017/18년부터는 전력부족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하였다. 파키스탄의 전력 부족에 따른 손실은 GDP 대비 2%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전력부족 문제 해결은 파키스탄의 안정적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에너지 인프라 외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도, 도로, 항구 개발 등 물류 인프라 구축 또한 파키스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정학적 근접성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정치적 우호국인 중국은 CPEC 사업 추진 이전부터 파키스탄의 최대 교역국인 동시에 주요 투자유입국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러한 중국과의 관계가 CPEC를 계기로 보다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CPEC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파키스탄 직접투자 유입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5/16년 파키스탄의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3.1억 달러로 전년도 유입액인 9.9억 달러 대비 133% 증가했으며, 2016/17년에는 전년대비 4.6% 증가한 24.1억 달러를 기록했다. 파키스탄 직접투자 유입은 에너지 분야(전력)를 중심으로 확대 되고 있는데, 2015/16년 파키스탄 전력분야에 대한 FDI는 2014/15년 2.8억 달러 대비 310% 증가한 11.6억 달러로 전체 유입액의 절반수준을 차지하였으며, 2016/17년 역시 CPEC 관련 투자가 지속되면서 전력분야에 8억 달러가 유입되었다. 한편 2016/17년에는 건설 분야 유입이 급증하면서 전년대비 900% 증가한 4.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CPEC 추진으로 2015/16년 중국의 對파키스탄 투자액이 전년 3.2억 달러 대비 약 233.3% 증가한 10.6억 달러, 2016/17년에는 11.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파키스탄 전체 FDI유입액의 약 50%에 달하는 금액이다.

〈표 3〉 파키스탄의 주요 FDI 투자국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국가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7-8월)
전체	1456.5	1698.6	987.9	2305.3	2410.9	457.2
중국	90.6	695.8	319.1	1063.6	1185.6	259.4
미국	227.1	212.1	223.9	13.2	71.1	13.1
영국	633	157	169.6	151.6	68.9	8.8
아랍에미레이트	22.5	-47.1	213.6	109.7	55.8	18.5
일본	30.1	30.1	71.1	35.4	45.2	10.2
홍콩	242.6	228.5	136.2	93.3	25	0.1
스위스	149	209.8	-6.5	58	16.9	0.0
한국	25.8	24.4	14.3	4	7.8	0.0

주: 파키스탄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임.

자료: 파키스탄 투자청(<http://boi.gov.pk/ForeignInvestmentinPakistan.aspx>).

CPEC 사업 추진으로 인해 수입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기계류 수입이 전년대비 32%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발전기기의 수입이 81.9%나 증가하였다. 특히 2016년 전체 수입이 6.8% 증가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8%나 증가하였다.

〈표 4〉 2016년 기준 파키스탄의 주요 수출·수입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명	금액	비중	국명	금액	비중
1	미국	3,430	16.3	중국	13,680	29.1
2	중국	1,591	7.6	아랍에미레이트	6,202	13.2
3	영국	1,558	7.4	인도네시아	2,089	4.4
4	아프가니스탄	1,370	6.5	미국	2,007	4.3
5	독일	1,186	5.6	일본	1,961	4.2
6	스페인	837	4.0	사우디아라비아	1,843	3.9
7	아랍에미레이트	785	3.7	인도	1,644	3.5
8	이탈리아	667	3.2	쿠웨이트	1,272	2.7
9	방글라데시	656	3.1	독일	996	2.1
10	네덜란드	651	3.1	말레이시아	945	2.0
-	한국	250	1.2	한국	739	1.6

주: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기준.

자료: CEIC.

4. 한-파키스탄 경제협력 현황

1) 교역

2016년 기준 파키스탄은 한국의 55번째 수출국이며, 65번째 수입국으로 한국의 전체 수출 및 수입 대비 파키스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13%, 0.05% 불과하다. 1980년대 후반

까지 폐쇄주의에 가까웠던 파키스탄과의 교역이 90년대부터 본격화되면서 한국과 파키스탄의 교역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16.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 증가하던 한국의 對파키스탄 수출은 2008년 이후 정체되어 있으며, 한국의 對파키스탄 수입이 2012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다.

〈그림 2〉 한국의 對파키스탄 수출·수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주: 2017년은 1~8월 수출입 금액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과 파키스탄의 주요 교역 품목에 대해 살펴보면, 양국간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라 경쟁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對파키스탄 주요 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윤활유, 건설 중장비, 의약품, 자동차 및 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농수산물, 직물 등이 있다.

〈표 5〉 한국의 對파키스탄의 주요 수출입 품목 (MTI 4단위)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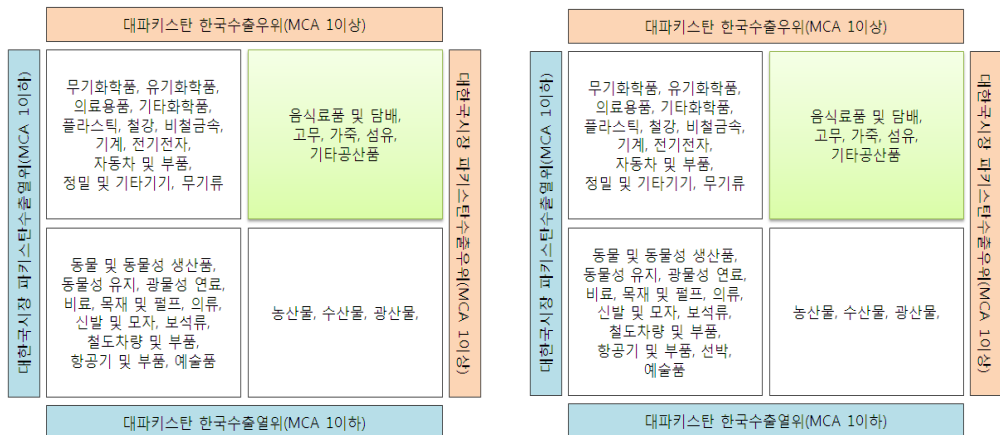
수출					수입				
품목명	2016	증감률	2017	증감률	품목명	2016	증감률	2017	증감률
합성수지	78.1	-12.6	76.1	45.8	나프타	56.6	111.5	69.6	150.7
윤활유	69.7	34.4	66.1	53.6	순면직물	36.5	-33.3	23.5	-6.6
건설 중장비	55.7	8.3	50.5	34.1	면사	37.5	-23.9	19.6	-12.3
기타 석유화학제품	41.9	30.3	33.9	81.1	주류	36.8	65.2	13.5	-50.1
냉연강판	34.5	-0.3	28.7	23.5	동괴 및 스크랩	5.4	-65.6	11.2	157.5
아연도강판	17.0	41.4	22.8	122.4	기타 가죽	19.6	-11.8	8.9	-29.5
의약품	58.1	56.9	20.4	-57.8	기타 비금속광물	9.3	-24.9	8.9	31.2
염료	28.4	25.3	20.2	6.5	어육	11.3	-11.8	8.3	9.8
아연도강판	23.8	-22.0	19.3	21.4	편직제 의류	13.2	40.0	8.0	-7.1
자동차부품	30.2	10.6	16.8	-6.0	계	5.5	86.5	5.9	15.0

주: 2017년은 1~8월 수출입 금액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조충제 외(2010)에서 한국과 파키스탄의 수출경쟁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국 모두 공통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는 유기화학, 고무, 철강, 선박, 플라스틱, 전기전자 부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파키스탄은 농수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 광산물, 섬유, 의류, 가죽 부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서로 상이한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시장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바탕으로 상대국의 수입시장에 대한 경쟁업종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대파키스탄 수입시장에서 무기화학품, 유기화학품, 의료용품, 플라스틱, 철강, 비철금속,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및 부품 등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키스탄은 우리나라 수입시장에서 농수산물, 광산물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충제 외(2010), 한-인도 CEPA 이후 對남아시아 통상정책).

〈그림 3〉 한-파키스탄 경쟁관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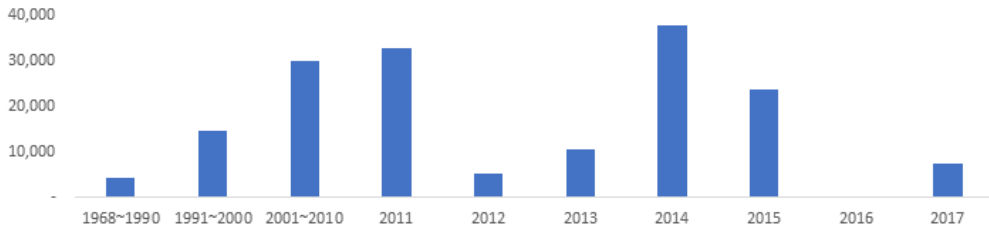
자료: 조충제 외(2010) 한-인도 CEPA 이후 對남아시아 통상정책

2) 투자

파키스탄은 우리나라의 77위 투자대상국으로 2017년 6월 기준 한국의 對파키스탄 누적 투자금액은 1.7억 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파키스탄 개방 이후 1990년대 1,456만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2000년대 2,989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이후 투자는 1.1억 달러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파키스탄 진출 주요 업종은 제조업(48.2%)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30.2%)으로 도매 및 소매업(7.8%), 운수업(7.2%), 건설업(6.1%)이 뒤를 있고 있으며, 기타 다른 업종의 진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4〉 한국의 對파키스탄 직접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주: 2017년은 1~6월 투자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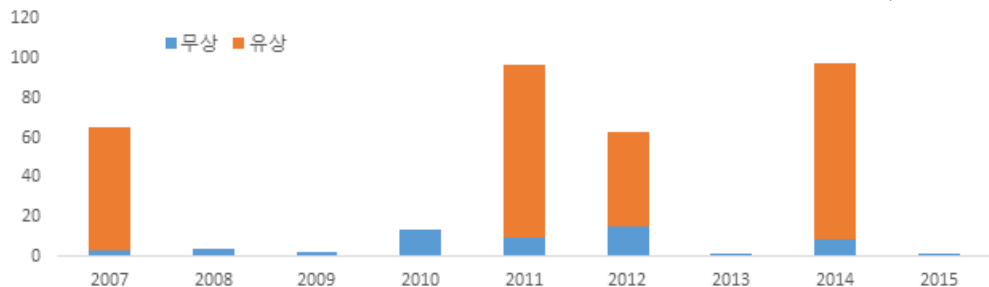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3) ODA

파키스탄은 우리나라의 ODA 주요협력국으로 한국의 對파키스탄 ODA 협력은 교역 및 투자와 비교해 나은 편이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파키스탄에 2007년부터 2015년간 5,720만 달러의 무상원조와 2억 8,700만 달러의 유상원조를 하였으며, 이는 동기간 우리나라 전체 원조금액의 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무상원조 프로젝트는 카라치 의 류생산기술훈련원 지원사업 (2008-11), 이슬라마바드 ICT센터 설립사업(2010-15), UN-HABITAT 국내피난민 지원사업(2010-2011) 등이 있으며, 유상원조사업으로는 GEPCO 지방배전망 확충사업(2007), 송변전설비 확충사업(보충용자, 2011) 등이 있다.

〈그림 5〉 한국의 對파키스탄 원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승인액(Commitments) 기준

자료: OECD

5. 한국과 파키스탄의 동반자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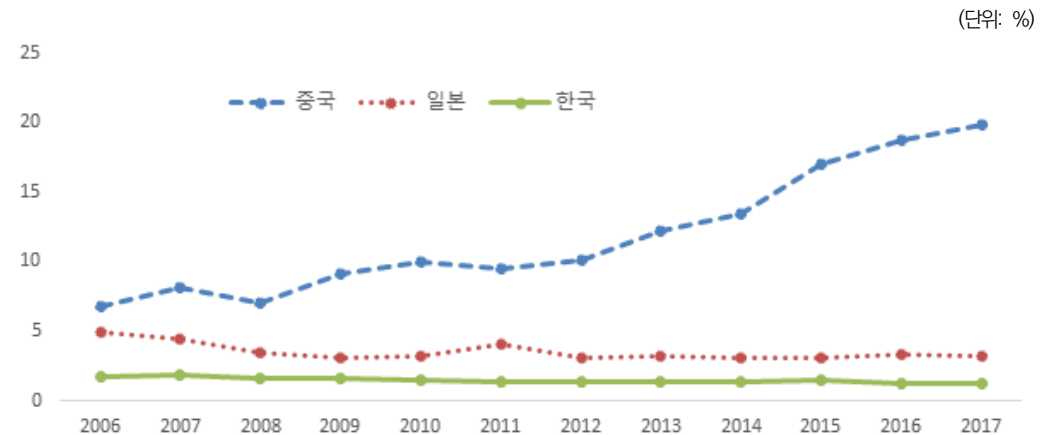
6% 수준의 경제전망, 25세 미만의 젊은 층 인구가 1억 명 이상인 파키스탄의 소비시장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파키스탄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CPEC 사업과 관련해 인프라 분야 진출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FTA의 본격 추진을 통한 교역활성화와 투자 강화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CPEC를 통한 파키스탄의 경제 활성화로 파키스탄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 기업들도 인프라 분야를 비롯한 파키스탄 시장진출 확대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다자지구를 통한 간접적인 CPRC 사업 참가를 생각할 수 있다. CPEC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사업 및 중국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중국기업이 맡게 되어 우리기업의 진출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카라치-페샤와르 구간 철도(ML-1) 개보수 사업과 같은 ADB등 다자기구 자금 기반 사업에 참여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후속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국은 ADB와 공동으로 도로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유럽,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또한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들도 CPEC 관련 사업 참여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도로교통망을 확충한 경험과 기술력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 및 도로교통 시스템에 대한 경쟁력을 또한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송배전 전력 손실률은 4% 이내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비교 우위가 있으며 또한, 현재 파키스탄의 주요 전력원 중 하나인 수력 외에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술 및 관련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ODA Korea(2016.12), 파키스탄 국가협력전략, 관계부처 합동). 특히 파키스탄은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가운데 하나로 파키스탄의 개발수요, 우리의 원조역량, 기 지원사업의 원조효과, 타 원조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우리나라의 對파키스탄 ODA 협력 중점분야 4가지는 ①교통 ②에너지 ③물관리 및 보건위생 ④지역개발이 있어 해당분야에 대한 ODA 자금을 활용한 에너지, 교통 분야의 진출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우리기업들이 파키스탄에 장기적인 진출방안을 고민해야할 시점으로 우리정부는 전략적 유·무상 ODA 자금지원을 통해, 투자촉진을 지원해야 한다. 개발협력 외교 역량을 바탕으로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대규모 사업을 선별한 후, 해외개발협력기금과 해외개발자금을 활용한 우리기업의 진출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PEC을 바탕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은 파키스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투자확대를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파키스탄 투자청(The Board of Investment, BoI)이 2017년 10월 4일 언론브리핑에서 CPEC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외직접투자를 2025년까지 2천5백억 달러까지 늘리는 장기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만큼 파키스탄의 투자환경은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제조업 기반이 약한 파키스탄의 공산품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파키스탄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FTA의 본격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이미 FTA를 체결, 싱가포르, 태국과 협상 중에 있으며, 최근 기사에 의하면 일본과 FTA 추진을 논의 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2007년 파키스탄-중국 FTA가 발효된 이후 중국제품 수입이 매년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일본 및 한국제품의 비중이 지속 줄어든 점을 고려할 때 한-파 FTA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한·중·일 파키스탄 수입시장 비중



주: 2017년은 1~8월 수입금액의 비중임.

자료: CEIC

Abstract

Pakistan is recognized as a country with high potential, having an abundant labor force and the future market with its massive population of around 200 million people including more than 100 million young people under the age of 25. With all this potentiality, Pakistan has received attention as NEXT-11 consisting of eleven emerging markets evaluated as having decent growth potential and investment prospects such as Korea, Mexico, Vietnam, Bangladesh and Nigeria.

In the fiscal year 2008-2009, under the difficulti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erious power shortages and regime change, Pakistani GDP only grew by 0.36 percent and its growth had been sluggish around 3-4 percent which is lower compared to that of neighboring regions. However, in the fiscal year 2015-2016, Pakistan's economy grew at the fast pace from the previous year by recording 5.5 percent GDP growth rate based on market price. Furthermore, along with the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CPEC) project, Pakistan's economy is expected to accelerate its growth. The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CPEC) is a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 that is being promoted as part of the new foreign policy strategy of the Xi Jinping's regime, well-known as the '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 (OBOR). Particularly, among OBOR projects, China-Pakistan cooperation sees remarkable progress. With the visit of Chinese president Xi to Pakistan in 2015, Pakistan and China has initiated and promoted a CPEC development cooperation plan. The project was launched in 2015 with \$ 46 billion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a vast network of highways, railways, oil and gas pipelines, laying of fiber optics, and developing industrial complex. However, later the investment is estimated to be enhanced to over \$ 51 billion after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and China increased funds to develop railway network from Karachi to Peshawar in Pakistan from the earlier allocation of \$ 3.5 billion to \$ 8 billion. Through this large-scale project, Pakistan is expected to

create 700,000 jobs and raise its economic growth rate by 2.5 percentage point. The IMF revealed its optimistic outlook toward Pakistan's economy with predicted growth rate of 6 percent in the medium term on the strength of CPEC investments, improved availability of energy, and structural reforms.

Considering the projected growth rate of 6 percent and the potential of the Pakistani consumer market including more than 100 million of young people under 25, it is time for Korea to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with Pakistan. First of all, regarding the CPEC projects, it is recommendable to develop the entry strategy for infrastructure sectors, such as finding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projects conducted by multilateral fund like ADB.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ntemplate the strengthening of ODA-based cooperation and the expansion of investment. Finally, it is worth considering the promotion of the full-scale FTA with Pakistan since Pakistan has strong dependence on industrial products import due to its weak manufacturing base.

고성장 인도경제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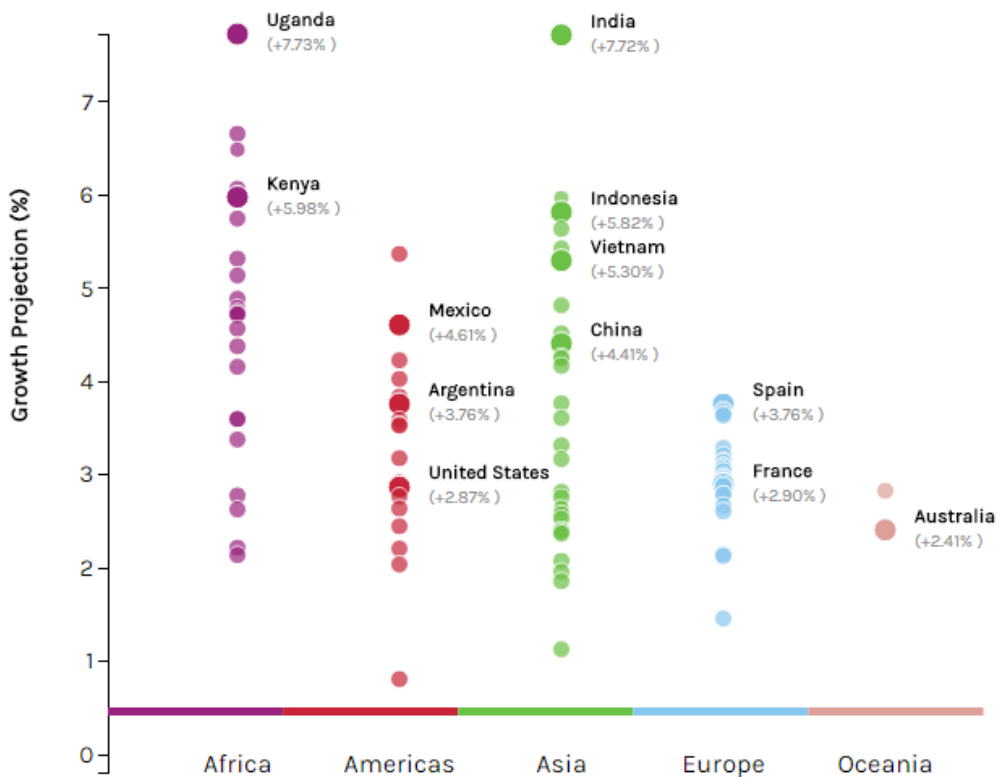
정무섭*

1. 세계 최고 성장률, 세계 최대 인구규모 경제인 인도

인도 경제의 장기 고도 성장 전망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관건은 이러한 인도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얼마나 빨리 실현되는가이다. 인도경제가 향후 중국에 이어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 하다. 이와 관련 최근 하버드 대학 국제개발센터(CID)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25년까지 연평균 인도경제는 7.7% 성장하면서 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같은 기간 중국은 연평균 4.4%로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現 동아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 박사
前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Global Growth Projections: Predicted Annual Growth Rate to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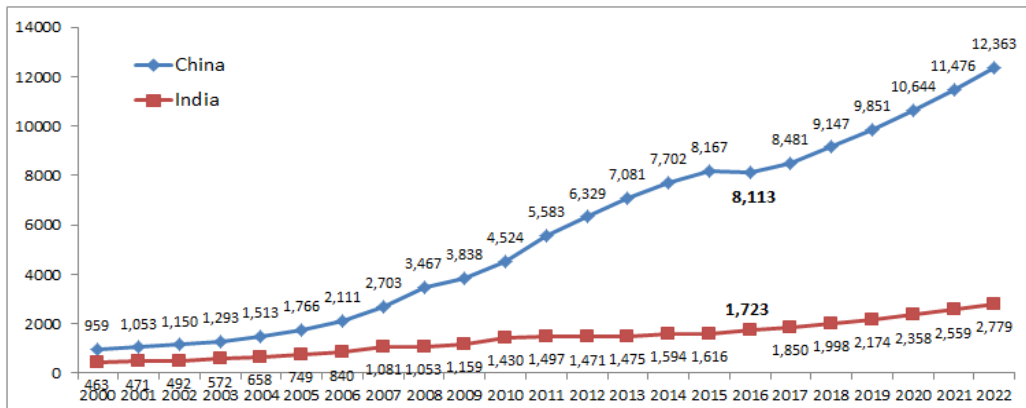
출처: Harvard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June 28, 2017), New 2025 Global Growth Projections Predict China's Further Slowdown and the Continued Rise of India, <http://atlas.cid.harvard.edu/rankings/growth-predictions/>

이러한 고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도의 1인당 GDP 수준은 IMF 명목달러 기준 2016년 1,723달러로 중국 8,113달러의 1/4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향후 이러한 인도경제의 성장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단계에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로 인한 1인당 GDP 증가를 살펴보면 1천 달러에서 5천 달러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의식주 수요와 전기, 도로 등 각종 기초 인프라 구축수요 등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고도성장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도경제의 현 수준의 1인당 GDP 수준은 아직 2천 달러를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산업화에 따르는 막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인구규모가 중요한 경제성장 잠재력 변수라 할 수 있으며, 인도의 인구는 현재 13억 3천명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도, 중국의 1인당 GDP 추이(명목 US달러)〉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7

한편 최근 발표된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이푸셴(易富賢) 연구원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2016년 기준 13억 3천만 명으로 이미 중국의 12억 9천만 명보다 더 많아 세계 최대 인구 국가로 부상했다고 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공식 인구 통계인 13억 8천 만 명은 신생아 통계의 잘못으로 인해 실제보다 9천만 명이나 더 많이 추정된 것이라고 한다. 연구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향후 10여년 안에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은 유엔의 공식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에 과거 20여 년 간 주요 성장동력을 제공해 왔던 중국의 경우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국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화 수요를 어느 정도 만족시킨 상황이다. 즉 중국은 이제 1인당 GDP 수준이 8천 달러를 넘어서 1만 달러 수준을 넘보고 있다. 이러한 성장단계에서는 성장의 기회가 단순한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으로의 경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에게는 기회이자 경쟁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인도경제는 중국을 대신해 한국 경제와 기업의 핵심시장으로

* 연합뉴스(2017.05.24), 中 인구, 인도에 추월당했나... "공식 통계보다 9천만명 적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4/02000000000AKR20170524060300074.HTML>

매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대외경제 파트너로서 중국의 대안으로서 인도경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도경제의 성장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인도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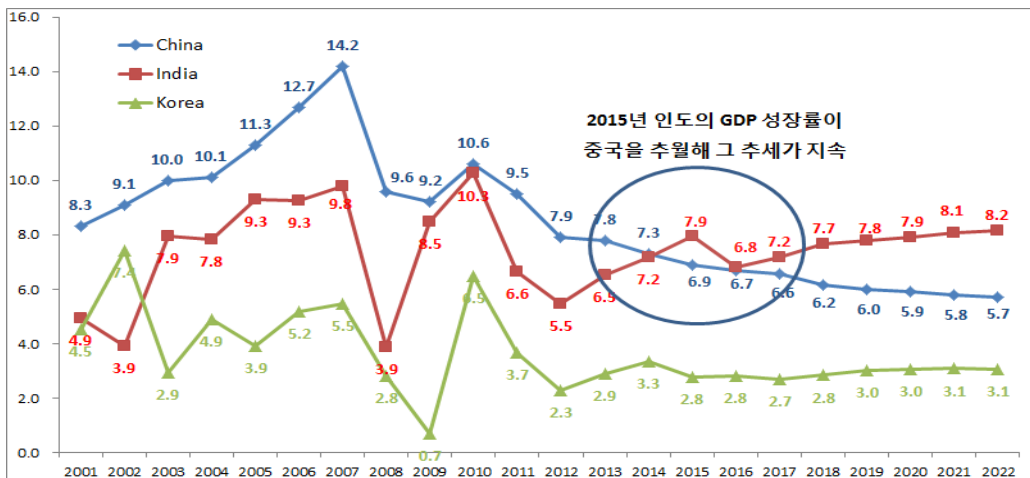
2. 인도 경제 현황과 전망

(1) 최근 경제 성장률 추이와 경향수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버드 대학 등에서 제시한 장기 성장 전망의 실현가능성을 보는 중요한 지표는 현재 인도경제 성장률이 중국과 비교해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매 분기마다 생성되는 각종 경제변수들을 고려해 실제 향후 5년간의 전망치를 실제 값과 함께 제시하고 있는 IMF 경제성장률 통계를 보는 것이다.

IMF 2017년 4월 자료를 활용해 만든 아래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인도 GDP 성장률은 2015년을 시작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을 추월하여 그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IMF의 전망치는 앞의 하버드대학의 전망치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 중국, 한국의 GDP 성장률 추이(%)〉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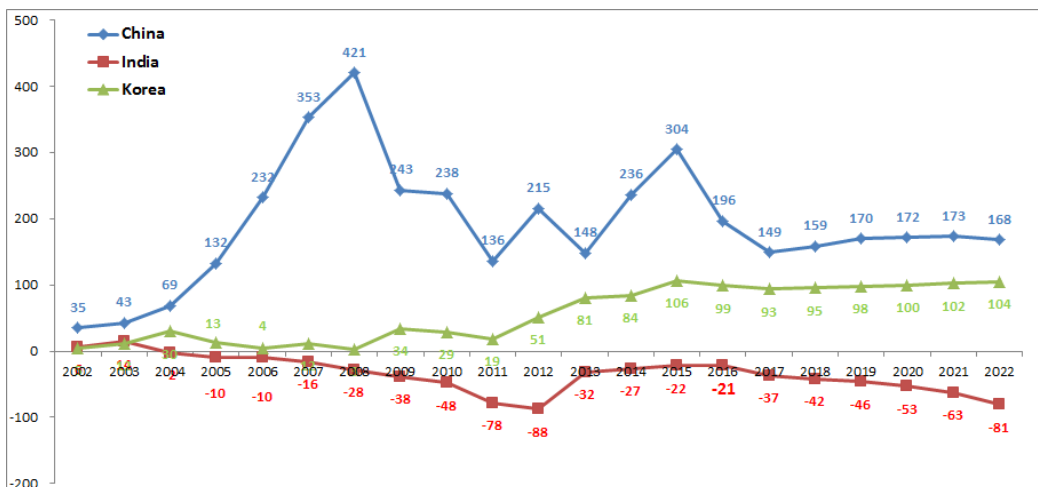
주 : 인도는 2017년 이후 부터, 중국, 한국은 2016년 이후부터는 전망치이며, 그 이전은 실제값

거대한 인구에 비해 이들의 기초적인 의식주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조의 발달이 더딘 인도경제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부문의 취약성은 앞에서 언급된 여러 기관들의 장밋빛 경제성장률 전망에 머리를 드리우는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상수지의 적자를 금융부문의 흑자로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시장의 환율의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또다시 외국인 투자의 증가를 가로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아래 IMF 자료에 나타난 인도와 한국, 중국의 경상수지 추이와 전망치를 살펴보면 이러한 인도의 취약한 대외경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IMF은 현재 연간 210억 달러 수준인 인도 경상수지 적자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경제 부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모디정부가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활성화 전략인 메이크인인디아(MAKE IN INDIA)전략이다. 즉 제조업의 활성화를 통해 수입수요를 대체하고, 수출확대를 통한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고 안정적이고 자주적으로 외환을 확보해 외환시장의 안정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디정부가 추진하는 메이크인인디아 전략의 성공여부는 인도경제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도, 중국, 한국의 경상수지 추이와 전망(십억 US달러, 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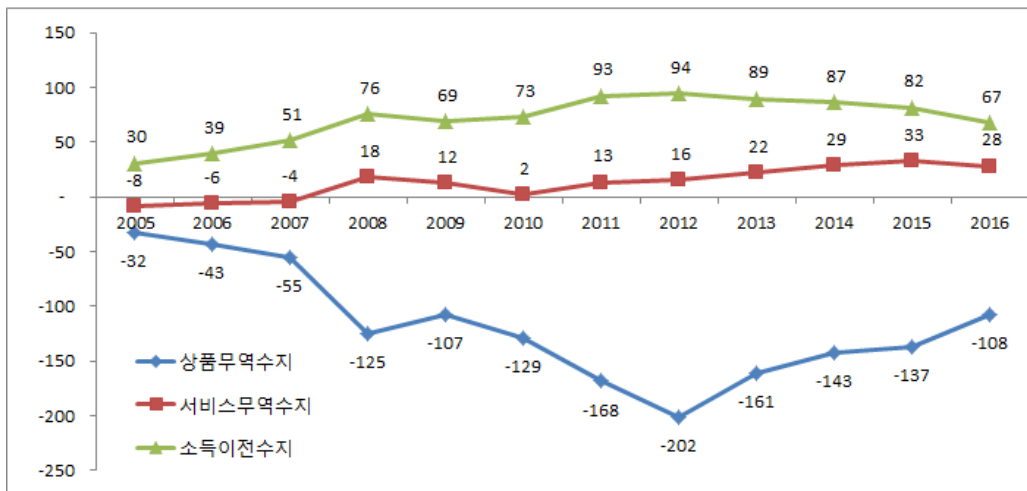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7

한편 UNCTAD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는 인도의 경상수지 항목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인도는 막대한 규모의 무역수지의 적자를 외국에서 일하는 인도노동자들이 인도로 송금하는 막대한 규모의 소득이전수지의 흑자와 주로 IT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수지의 흑자로 상쇄하는 구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모디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14년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비스수지 흑자나 소득 이전수지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무역수지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추이는 인도의 메이크인인디아 전략의 성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추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의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이전 수지 추이(십억 US달러, 명목)〉



주 : IMF와 UNCTAD의 데이터 집계기준의 차이로 인해 IMF 경상수지의 금액과 다소 차이가 남
자료 : UNCTADSTAT 데이터 베이스

(2) 모디의 메이크인인디아(MAKE IN INDIA) 전략의 현황과 전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14년 5월 총선에서 소속정당인 1일 야당인 인도국민당(BJP)가 압승함으로써 10년만의 정권교체를 통해 총리에 취임하게 되었다. 구자라트 주지사 시절의 강력한 경제개혁과 개방적 친시장 정책으로 10% 이상의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한 경험과 성공이력이 인도국민들의 변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와 맞아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모디의 새로운 인도를 만들기 위한 5대 목표는 성장의 인도, 강한 인도, 힌두의 인도, 모디의 인도이다. 그 중 경제부문의 국정목표라 할 수 있는 “성장의 인도”는 다시 5가지 전략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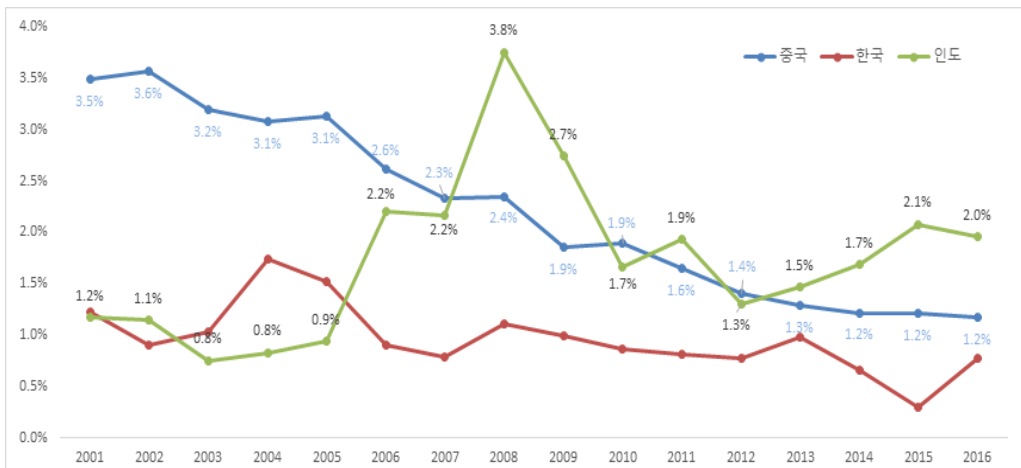
로 구체화되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메이크인인디아 전략이다. 나머지 네 가지는 디지털 인도, 스킬 인도, 스마트 시티, 클린 인도인데, 이 중 여러 측면에서 제조업 육성정책인 메이크인인디아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네 가지 전략의 성공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을 판단된다. 즉 모디의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는 모디노믹스의 성공여부는 메이크인인디아전략의 성공여부에 상당부분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도는 제조업보다는 농업과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어 발전한 국가다. 국내 제조업 기반은 일부 제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 산업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전자나 자동차 등 첨단제조업 분야에서는 외국계 다국적 기업이 중심이 되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열악한 인프라와 노동력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 대규모 토지확보의 어려움, 규제, 주민반대 등 각종 제도, 문화적인 어려움과 국내 기업들의 자금, 기술력 부족, 정부 재원의 부족은 제조업투자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제조업 발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모디 총리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치중해 왔고 그 성과가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UCTAD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아래 그래프에 따르면 모디 정권출범 이후인 2015년 이후 GDP대비 FDI 유입비중이 2%를 넘어서면서 중국, 한국보다도 더 높은 유입비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임 이후 모디 총리가 전력을 다해 추진한 해외순방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취임이후 미국만 4번을 포함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다니며, 정상회담과 함께 투자유치가 가능한 기업의 현장을 직접 방문에 특유의 비즈니스맨적 기질을 발휘하면서 직접 투자유치를 수행해 왔다고 한다. 최근 인도 내 언론에서도 취임 이후 약 3년 간 총 지구를 8.5바퀴를 돌며, 45개국을 순방하면서 임기 중 해외순방일이 총 119일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 Hindustantimes(2017, 5, 12), Around the world with PM Modi: Track his trips and how much they cost, <http://www.hindustantimes.com/interactives/modi-foreign-visits-map/>

〈인도, 한국, 중국의 GDP대비 FDI 유입비중(%) 추이〉



자료 : UNCTADSTAT 데이터 베이스

특히 최근 애플은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인도 내 제조공장 건설에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모디 정부는 정권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언론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모디정부는 과거 외투기업에게 적용해 오던 인도 내에서 설립되는 외투기업의 제조공장은 인도내에서 생산된 부품과 원자재를 30% 이상 활용해야 한다는 소위 “30% 로컬 소싱 룰”을 완화해 줄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로컬 소싱 룰은 각종 제조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지 못한 인도에 다국적 기업이 제조공장을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모디의 외투기업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이미 외투기업 활용의 단계를 넘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 전략변화와 인도시장의 소비시장으로서의 막대한 잠재력과 이어지면서 향후에도 당분간 그 성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외투기업들의 유치를 통한 제조업 확대전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 인프라의 부

* Financial express(2017, 10, 10), Made in India iPhone: Modi govt weighing up Apple's proposal to set up manufacturing unit. <http://www.financialexpress.com/industry/government-weighting-up-apple-proposal-to-set-up-manufacturing-unit-in-india/888674/>

** Financial express(2017, 10, 12), Relief for Apple, Ikea, other MNCs? Narendra Modi government may ease 30 pct local sourcing rule. <http://www.financialexpress.com/economy/relief-for-apple-ikea-other-mncs-narendra-modi-government-may-ease-30-pct-local-sourcing-rule/891137/>

족, 적당한 토지공급의 어려움, 적절한 인적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사문제, 모디 정권에 대한 정치적 불안요소 등 각종 걸림돌들이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 길이 순탄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지어 일부 인도 언론에서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모디의 메이크인인디아 전략은 점차 농담(joke)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인도 내 전력, 도로, 도시기반 등 제조업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문제로 인해 인도 진출과 관련된 중요한 전략적 방향 중 하나는 인프라 건설을 제조기반 구축과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형 진출 전략이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델리와 뭄바이를 잇는 약 1,000KM의 산업철도를 기반으로 전력 과 스마트도시를 그 주변에 건설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델리 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를 10여 년 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여타의 많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도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참여도 확대해 줄 것을 인도의 정부 관계자들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3) 화폐개혁, 부가세개혁, 생체인식 신분증 도입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노력 지속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드인프라 구축 노력과 함께 모디정부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에는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화폐개혁과 부가세 개혁 및 생체인식 신분증 도입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인도경제가 정상적인 국제적 기준의 시장과 제도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개혁이로서 추진과정에서의 진통에도 불구하고 모디노믹스의 강력한 사회적 추진 동력의 힘에 기반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아래 표에서는 각종 자료를 종합해 3대 제도 개혁의 내용과 효과를 정리해 보았다. 아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부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 Times of India(2017, 10, 1), Make in India is looking more and more like a bad joke. <http://blogs.timesofindia.indiatimes.com/folk-theorem/make-in-india-is-looking-more-and-more-like-a-bad-joke/>

〈모디정부의 화폐개혁, 부가세 개혁, 신분증 개혁 현황〉

	화폐개혁 (Currency Reform)	부가세 개혁 (GST: Goods and Services Tax)	신분증 개혁 (AADHAAR)
시행 시기	2016년11월	2017년7월1일	2010년11월
주요 내용	-1천 루피와 500루피 지폐를 일시에 사용 중지하고 신권으로 교체하도록 조치로 그 목적은 검은돈을 양성화하며, 디지털화된 탈화폐 경제를 만들어 세금 기반 확보 등 복합적 목표	-주마다 다르게 부과되던 부가가치세를 전국적으로 같은 세율 적용하는 개혁으로, 그동안 추정 부별로 16~28% 범위에서 차별적으로 부과해 오면서 각 구간 경계를 넘는 과정에서 세금 부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	-인도의 전 국민에게 지문,홍채, 얼굴사진 정보를 담은 신분증을 발급하고, 기존의 지문과 홍채 인식으로 본인 확인만 가능했던 것을 버전업해 통합결제시스템, 디지털 의료, 교육과 구직 활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가능하게 함
성과 평가	-긍정적 평가: 유통되는 화폐가 많이 줄어들자 사람들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보다도 편리하게 송금과 결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로 전환해 모바일 송금, 결제 증가 -부정적 평가: 인도는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되는 관행으로 인해 화폐개혁 과정에서 유통성 감소로 인한 고가품 매출 급감 (화폐개혁 발표 직후 3일간 신차등록, 약 70% 급감, 일부 대도시 주택가격 30%이상 급락)	-긍정적 평가: 인도 내 단일 부가세 부과로 인한 단일시장을 형성에 기여 -부정적 평가: 부가가치세(GST) 도입이후 적응 과정에서 세금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 발생	-긍정적 평가: 은행거래, 진료, 출생증명, 납세 신고 등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됨 -부정적 평가: 사생활보호는 인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생체인식 신분증 도입은 사생활 보호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인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민운동가들이 AADHAAR 금지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

자료 : 각종 언론자료 종합*****

* 강선구(2016.08.17), 인도의 단일부가세(GST) 도입 빅뱅식 개혁 급물살 예고, LG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http://www.lgeri.com/report/view.do?idx=19465>

*** 아주경제(2017.09.19.), 인도, GST 시행 이후 세수 부족… 인프라 투자 축소 불가피, <http://www.ajunews.com/view/20170919153408123>

*** 이투데이 (2017.04.30.), 인도, 화폐 개혁 뜻밖의 효과...현금은 물론 카드 없는 사회로 넘어가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86452>, 배준호 기자

**** 아시아투데이 (2017.01.23.), 인도, 지문인식 은행거래 추진...생체인식 신분증 프로젝트 “아드하르” 활용.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123010014800>

***** 이투데이(2017.08.25.),인도 대법원 “사생활 보호는 기본권”...모디 정부, 생체인식 신분증 계획에 타격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31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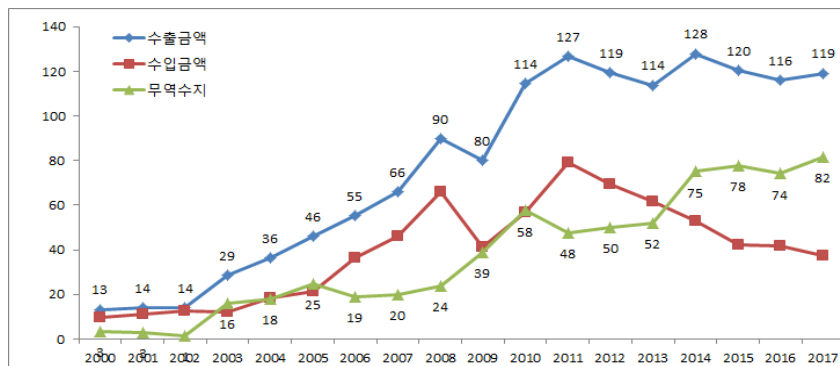
3. 한-인도 경제 관계 현황과 발전전략

(1) 한-인도 수출입

이처럼 모디정권 출범 이후 인도경제는 바닥에서부터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속도는 분야별로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한국 기업과 경제는 변화하는 인도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인도와 한국의 경제관계를 거시적으로 보기 위해 우선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0년 1월 1일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를 기점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는 증가된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2016년까지는 정체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17년은 9월까지 집계자료가 이미 작년의 규모를 증가해 올해 들어 수출의 대폭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CEPA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한-인도 간 통상협상에서 인도 측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인도 수출입 추이(억 US 달러)〉



주 : 2017년은 9월까지 집계된 자료

자료 : 관세청 DB(<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index.do>)

* 연합뉴스 (2017.08.31.), 인도, 화폐개혁 사용중단 구권 99% 회수...검은돈 퇴치성과 논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31/0200000000AKR20170831196900077.HTML>

** 한국일보 (2016.12.12.), 화폐개혁 인도에 투자할 때 <http://www.hankookilbo.com/v/dd8868a6bafd4f8194518c0a691c61e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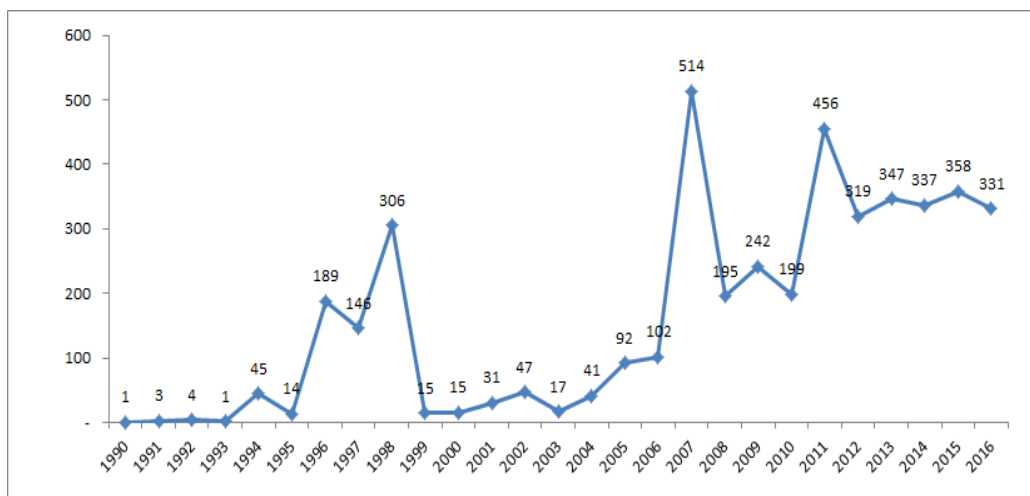
*** KOTRA 해외시장뉴스(2017.06.20.), 인도 통합간접세(GST) 세율확정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9307&searchNationCd=101074>

하지만 이러한 무역수지의 적자 확대 현상은 인도 내 한국기업의 제조공장 확대에 따른 부품수출과 인도에서 생산된 완제품의 유럽 등 다른 나라로의 수출이라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도로서도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도 내 부가가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더 클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수지와 함께 인도로의 한국기업의 직접투자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에서 인도와 한국의 관계를 보는데 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 한국기업의 대인도 직접투자 현황

아래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인도 전자, 자동차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내수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삼성, 현대, LG가 투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인도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후 2007년 이후 최근까지 매년 약 3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이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對인도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Flow, 백만 US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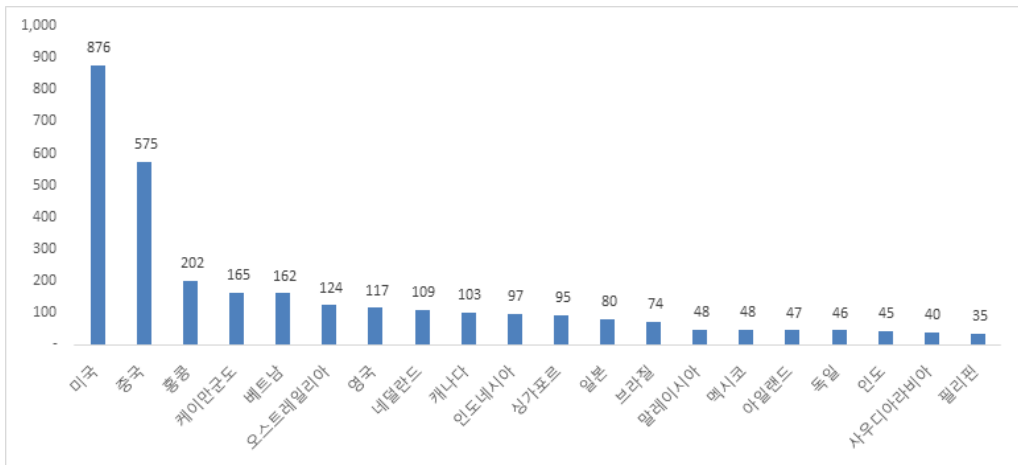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

이러한 최근의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는 한국기업에게는 주된 관심지역이 아닌 상황이다. 아래 1990년 이후 한국기업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합계를 살펴보면 인도는

45억 달러로 18위에 해당한다.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가치사슬 관점에서 볼 때 인도로의 투자 확대는 한국의 대인도 수출확대와 함께 양국 간의 투자로 인한 상호 이익과 부가가치의 확대에 기여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후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합계 (억 US 달러)〉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에 진출해 이미 인도기업이 된 삼성, 현대, LG의 성공적인 성과를 이어갈 후속 기업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도 내부의 각종 인프라 부족의 문제점과 먼 지리적 거리, 전문인력의 부족, 인도에 대한 연구와 정보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미 진출해 큰 성공을 거둔 3대 대기업의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다른 기업들의 진출 및 성공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1996년 진출한 현대차인도법인은 현재 인도에서 내수 2위, 수출 1위의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다. 1998년 첸나이시의 1공장에 이어 2008년 2공장을 추가로 설립해 현재 연간 65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상황이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진출해 작년에 생산공장을 설립한 아래의 효성의 진출사례는 추가적인 진출기업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효성 인도 진출 사례〉

□ 의류용 원사로 스판덱스, 산업용 소재로는 탄소섬유 등을 포함한 인도 섬유·산업자재·중공업 분야에서 효성은 2007년 최초 진출 후 2017년 현재 인도 내에서 연매출 3,000억 규모로 성장

- 2007년 : 인도 뉴델리에 사무소 형태로 개소
- 2010년 : 푸네(Pune) 지역에 차단기를 생산하는 푸네 법인을 설립
- 2011년 : 인도 지역 무역을 총괄하는 인도법인으로 전환
- 2014년 : 모디 총리가 부임한 이후 모디노믹스 (모디의경제정책) 를 통해 섬유산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
- 2016년 : 인도 현지 GIS(가스절연개폐기) 생산 공장 설립

□ 효성은 인도 정부기관인 섬유부 차관의 요청에 따라 2017년 인도 내 대규모 박람회인 텍스타일 인디아에 최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인도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 중

출처 : 한국섬유신문 (2017.10.27.) , 효성, ‘스판덱스·탄소섬유’ 앞세워 인도시장 공략;
효성그룹 뉴스센터(2016.02.13.), 중공업PG, 인도 ELECRAMA 2016 전시회
참가 外

4. 결론 및 제언

인도는 중국을 이어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나, 중국과 달리 제조업보다는 고급 인력에 기반한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따라서 제조업에 대한 인식 또한 동아시아 한, 중, 일, 대만 등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들과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유교적 사상에 기반한 대량생산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은 한자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중앙집권적 국가를 이어온 중국 등 한자 문화권에는 적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자보다는 부락 중심의 카스트와 수천년을 면대면 구전으로 경전을 전수하고 이어가는 힌두교 전통을 국민 대다수가 신봉하고, 70% 가량의 대다수 인구가 여전히 도시가 아닌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에는 제조업 발전을 통한 국민의 의식주 문제의 해결

은 굳이 자국기업이 아닌 외국계 기업의 몫으로 여겨도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제조업 문화에 친숙한 한국기업에게 기회이자 위협으로 작용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기업이 인도 내에서 큰 차별과 경쟁압력 없이 인도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이러한 인도 내에 제조업에 적합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희망하고 추진하는 한국의 경제주체들은 먼저 인도의 문화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인도인과 인도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OECD의 경제사 통계에 따르면 기원전부터 기원 후 10세기까지 전세계 GDP의 약 30%를 인도가 차지했고, 세계 1위의 경제 선진국인 지위를 약 2000년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문화적 저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이 인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 사회에 퍼지는 요가 열풍, 문자보다는 면대면 소통에 기반한 페이스북 등 소셜커머스의 보편화와 대량생산보다는 개인이 중시되는 생산시스템의 확산 시대에 면대면 소통과 다양성 속에서는 조화와 적응을 중시하는 인도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인도경제의 부상과 한국과 인도의 관계발전을 통한 상호이익도 이러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부상과 연결되어 가속도가 더해질 가능성 또한 높아 보인다.

India–Korea Strategic Relations

Rahul Raj*

Korea occupies a very important place in the Indian foreign policy. Although India's engagement with Korea dates back to thousands of years, much of the developments in the realm of the business and strategic relations developed in the post-1990s to project itself as a regional power when it opened its market and launched its "Look East Policy". Under this policy, it initiated forging several economic and commercial ties and also enhanced security partnerships with like-minded countries who are concerned with the increasing influence of China in the region. In the early years, the "Look East Policy" was primarily focused o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region; however, India steadily expanded the geographic domain of its policy to include Korea, Japan, China, and Australia.

* 한양대학교 한국학 박사
前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Economic Cooperation

South Korea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pillars of India's "Look East Policy" and was one of the first countries that sought to increase economic engagements with India under this policy. The former Indian Prime Minister P. V. Narsimha Rao on his visit to Korea in 1993 invited Korean business houses to look towards a liberalized Indian market which was well received by the Korean chaebols. Today, South Korea can boast to say that Samsung, LG have become household names in India. The bilater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t about 22 percent annually, over the past few years. In order to further galvanize the economic partnership between two countries both countries signed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in 2009 which was a landmark event to bring both countries more closer in terms of trade and business. It has helped to reduce import tariffs and created a more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 and also contributed in the exchange of the people to people contact.

However, the Indian growth story lost its sheen in the last decade. The economic slowdown in India, policy paralysi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hurdles in getting bureaucratic clearances had put shadows over the CEPA. Although the signing of CEPA has helped the bilateral trade to increase by around 70 percent, there are still rooms to further enhance it knowing the vast potential of two countries. Hence, in order to further accelerate the bilateral trade, the two nations agreed to upgrade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to increase Korean presence in the Indian market.

Since coming to power, the Indian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has re-crafted India's "Look East Policy" to "Act East Policy" under which India has put a greater emphasis on cooperation with its East Asian neighbors. The Modi government in India has dedicated a "Special Channel" for Korean business to streamline the business investment process in India. Recently, India has also changed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olicy wherein Korea could also grant ODA loans to projects implemented by the Korean companies in India. Although Korea is still far behind among the major investing countries, it has recently tried to re-focus towards the Indian market. Looking at the positivity of the Indian economy, Korea has agreed for \$10 billion investment in various sectors in India.

Defense Cooperation

The two countries have elevated their “Strategic partnership” to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and also agreed to hold foreign and defense affairs dialogue in 2+2 format. After this agreement, South Korea became the second country after Japan with which India holds talks in 2+2 between their defense and foreign secretaries. There is also a vast potential of cooperation in the area of security. India is the world’s largest defense market after China. India is the second largest importer of arms and weapons. It is estimated that 250 billion dollars of capital procurement is in the pipeline over the next 10 years. It gives more reason for Korean defense companies to collaborate with Indian companies. Recently, South Korean defense firm, Hanwha Techwin signed an agreement with its Indian partner, Larsen & Tubro to jointly produce self-propelled howitzers for the Indian army pegged at more than \$ 700 million. Furthermore, another South Korean firm, Kangnam Corporation is looking to sign an agreement with the Goa Shipyard in India to supply minesweepers to the Indian navy. South Korea have signed an agreement to cooperatively produce five fleet support ships (FSS) for the Indian Navy estimated to be more than \$ 1.5 billion.

The strategic relation is not confined to arms and weapons trade deal. Since 2004, the coast guards of both nations jointly hold naval exercises. As this exercise is not directed towards any country there is further scope to upgrade it to joint naval exercise between both countries. Furthermore, there are a lot of synergies where both countries respect each other’s concerns and also addressing at their own diplomatic level. Although India has maintained its relations with both Koreas, it is also fully aware of the North Korea’s bellicose behavior and its nuclear proliferation. In order to address South Korea’s security concerns India has agreed to comply with the United Nations sanction on North Korea and limit its trade with the reclusive regime, though this commitment does not include humanitarian aid which focuses on food items and medicines. In that way, India could play its role in its own capacity to easing tensions and promot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s security interests coincide with India’s security interests in the sense that India is also concerned over the supply of North Korean missiles to its neighboring country, Pakistan.

Areas of Cooperation in other sectors

Smart Cities, Construction (highways, expressways, subways, and railways), remodeling of Indian railway stations, education, green energy, civil nuclear energy, etc

Prospective cities for Cooperation

Name of province	Name of Cities
Gujarat	Ahmadabad, Vadodra, Surat
Maharashtra	Mumbai, Pune
Tamil Nadu	Chennai
Andhra Pradesh	Vijaywada
Telangana	Hyderabad
Karnataka	Bengaluru, Mysore
Uttar Pradesh	Noida
Delhi	

Since 2014 India has become the fastest growing economy wherein it has become the cynosure of all the major investors to see as a hope in the midst of the gloomy face of the world economy and the recent protectionist policies being forward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It is also the only emerging economy which is witnessing an upward swing in its growth trajectory. In the last quarter, it achieved a growth of 7.1 percent and is forecasted to further accelerate its growth trend. The recent Harvard Center'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its report, said India is projected to record average annual growth rates of 7.9 percent over the next 8 years overtaking China's 4.6 percent projected growth over the same period.

Until now the focus of the Korean foreign policy has been mostly confined to Nor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 region. This is one of the reasons that Korea does not figure in the top ten investing countries in India. On the contrary, it is among the top investing countries in Northeast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Vietnam, and the

Philippines. Interestingly, Korea's neighbor Japan has improved from its fifth to third position among the top investing countries in India and is involved in several multi-billion dollars projects in India. It is time for Korea to look towards India and expand its foreign policy beyond the limits of trade and business.

UNINOMIC REVIEW

Vol. 1 No. 2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경원

편집위원(가나다순)

김경원
김대중
배기형
이덕로
이희찬

발행처 | 세종연구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32길 15 세종연구원
전화 | 02-499-5765

인쇄소 | 알래스카 인디고(주)

전화 | 02-2277-5553

인쇄일 | 2018년 9월

발행일 | 2018년 9월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Uninomic Review

Vol. 1 No. 2

South Asia and Korea's Survival Strategy

**Survival Strategy of Sri Lanka
and our Choice**
Kim, Yong Duk

**Big Business opportunities
coming back in Bangladesh**
Kim, Jong Won

**Nepalean India-China
Balancing Strategy**
Park, Jung Suk

**The core of Western India,
Maharashtra**
Lee, Dae Woo

The core of Indian Economy
Lee, Soon Chul

**Analysis of Economic Issues
in Pakistan and partnership**
Lee, Jung Mi

**Indian Economic Issues and
Corporation with Korea**
Jeong, Moo Seob

**India-Korea Strategic
Relations**
Rahul Raj



값 10,000원